





# 경기도의회 임종현 의장, “북부특자도 설치 특위” 통과 환영... 개원 1주년 맞아 ‘강력한 협치’ 실천해야

# 제12대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1년, 성과와 비전 윤승오 위원장 “도민의 가치 실현 및 미래 교육 수요 적극 대응”

## 11일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최사

임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1일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북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결을 두고 '존이구동(尊異求同)'을 실천한 결과라고 평했다.

해당 안건이 지난 4월 임시회에 발의된 이래 두달 여 만인 지난달 28일 '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데 따른 의결 표명으로, '존이구동'은 '다름을 존중하고 그 가운데 같은 점을 찾는 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이어 제11대 의회 개원 1주년(7월1일)을 맞아 다른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제시하며 '강력한 협치'를 강조했다.

임 의장은 이날 오전 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사를 통해 "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에 대한 양당의 첨예한 이견이 있었음에도 본회의 전날 밤 늦게까지 논의를 이어가며 결과를 도출해냈다"라며 "만시지탄의 느낌이 없지 않으나 이것이 바로 협치가 만들어 낼 수 있는 아름다운 성과라는 점, 존이구동의 실천이라는 점에서 특위의 활동결과에 큰 기대를 걸어본다"라고 말했다.

지난 1년의 결실로는 '여야정 협의회' 구성, '의정정책추진단' 및 '초선의원 의정 지원 추진단' 출범,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상시기구 전환, '개방형 사무처장 임명', '정책지원관' 78명 채용 등이 소개됐다.

이와 관련, 임 의장은 "제대로 된 자치와 분권을 위한 과제가 여전히 우리 앞에 산적해 있다"라며 ▲지방의회법 제정 ▲조직구성 및 예산편성권 확보 ▲의원 1명당 1인 정책지원관 배치 ▲감사권 확보 등을 과제로 들었다.

그는 "오랜 세월 경기도의회는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와 분권강화, 발전을 위해 선두에서 항로로서 역할을 해 왔다"라며 "경기도의회가 하는 일이 17개 광역의회의 표준이 되는 시대에, 우리가 나선다면 더욱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55명 의의원이 힘을 모으고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태희 경기도교

육감 등 공직자가 힘을 보탠다면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와 분권의 더 큰 진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며 "1400만 도민이 만들어 준 도민주권의 정당으로서, 도민의 권리가 더욱 커지고 도민 모두가 정책의 주인이 되도록 도의원 전원이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임 의장은 "남은 3년의 임기도 '서로 간의 다름을 인정하고, 차이를 존중하며 온전히 받아들인다'라는 존이구동의 정신과 자세로 소통과 협치의 새시대를 열어젖히겠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제11대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7월1일 임기 시작된 이래 최근 1주년을 맞았다. 제370회 임시회는 이날부터 18일까지 8일 간 진행된다.

최만식기자

제12대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승오)가 지난 2022년 7월 8일 전반기 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출범한 지 어느덧 1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11대 보다 2명이 늘어 모두 11명의 의원들로 구성된 제12대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윤승오 위원장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현장 의견 청취 및 의원 역량 강화를 통한 전문적인 의정활동으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가치를 실현하고, 교육격차 해소와 미래교육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등 도민의 눈높이에 부응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며 도민과 함께 달려온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지난 1년을 되짚어본다.



◆ 도민과 소통하며 공감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

위원회 구성시부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표방한 교육위는 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며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한가지 예로 (구)울릉서중학교 매각건에 대한 사전 점검을 통해 폐교에 대한 미래 행정 수요 및 보존 가치를 확인하고 매각 유보 및 대안제시, 주민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청취한 적이 있는데, 이는 현장에 답이 있음을 증명할 뿐 아니라 폐교 활용에 대한 미래지향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을 발휘한 대표적인 사례다.

◆ 활발한 입법 활동으로 열정적으로 일하는 의회

제12대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7월 구성 이후 현재까지 조례안 36건을 비롯하여, 예결산안 6건, 동의안 및 기타 안건 13건 등 총 5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조례안 36건 중 의원 발의안은 24건으로, 이는 지난 11대 교육위의 1년 차 기간 중 의원발의한 조례안 14건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교육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돋보였는데, 특히 2023년 교육청 본예산의 경우 최종 334억원 삭감하여 수렴가결하는데 구속적 역할을 하는 등 교육력 회복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 효율적인 도정 및 교육행정 운영을 위한 견제와 감시 역할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철저한 사전 준비와 면밀한 자료 분석을 토대로 열정적이고 강도 높은 질의를 통해 교육정책 전반에 걸쳐 총 68건(시정

처리 13건, 건의.촉구 52건, 제도개선 3건)에 이르는 다양한 지적 및 개선사항을 도출해냈다.

이 밖에도 10건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상북도의 미래 성장 동력 및 먹거리 확보를 위한 도정에 관한 정책도 활발히 추진해왔다.

더불어 대규모 자연재난 재발방지 대책, 대구군부대 통합 이전, 과밀학교 대책 마련 등의 도정 및 교육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 질의인 도정질문을 통해 추진 방향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 끊임없이 연구하는 의회

또한, 학습결손 및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교육정책연구회, 경상북도경제교육발전연구회, 경상북도 학교안전연구회 등 각종 정책연구회활동을 통해 안목을 넓히고 정책제안 기능을 강화하여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원상을 정립해 나가고 있다.

그 결과, '2022 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 '2022년 대구경북 의원정책대상', '제13회 우수의정대상', '2023 지방의정대상' 등 각 분야에서 교육위원회 8명의 의원이 수상 영예를 안았다.

윤승오 위원장은 "지난 1년간 제12대 교육위원회를 믿고 지지해 주시고, 때로는 따끔한 질타를 해주신 도민, 학부모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소통하며,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교육력 회복,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기반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윤근수기자

# 충남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 12일부터 25일까지 14일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및 조례 제·개정안 등 심의

충남도의회는 12일부터 25일까지 14일 간 열리는 제346회 임시회에서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 및 각종 조례 제·개정안 등을 처리한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신영호 의원(서천 2-국민의힘)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또한 이상근 의원(홍성 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자치경찰제의 완전한 안착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통해 관련 대책을 촉구한다.

도의회는 이번 회기 '충청남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도 심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별위원회의 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12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부위원장장, 윤리특별위원회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한다. 21일에는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대책 특별위원회'가 신도시 내 현장방문을 계획하고 있으며, 24일에는 '국방관련 기관 이전과 국

방산단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제3차 회의를 열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을 계획이다.

조길연 의장(부여 2-국민의힘)은 "이번 회기에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각종 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며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님들께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 편집국장:최재은 부회장:박유석 임석경 청소년책임보도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계호: 문화매일신문 |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정치부:대선 (112)	문화부:대선 (116)
광고국:1899.9659	사회부:대선 (113)	부동산부:대선 (117)
	경제부:대선 (114)	오피니언부:대선 (118)
	스포츠부:대선 (115)	지방부:대선 (119)

서울본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714 스카이블리2차 708호

경기본사: 경기 광명시 시청로 7 흥신 에이스텔 701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ZOOM

들여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은 영양

숲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길... 조지훈과 주시마를

길

하늘과 산이 어우러져 하나된 자연의 아름다움... 영암의 길

물

영암의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 영암의 물

빛

별이 쏟아지는 밤... 영암의 빛

연

영암의 전통... 영암의 연

맛

사방에서 들려오는... 영암의 맛

심

자연과 벗한... 영암의 심

## 영양

## 들여다보기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감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 일월산, 선비와와 남이포, 삼이계곡, 수하계곡, 본신계곡, 천벽공원, 축백수림, 외씨바선길
- 영양의 역사: 음식디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검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 영암국립해늘보호공원, 반딧불이천문대, 영암생태공원, 영암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연생태관, 영암풍력발전단지, 흥림산자연휴양림, 영암산촌생활박물관, 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



# 서울시, 버려진 마스크, 아크릴, 페트병 등으로 만들어진 업사이클링 전시 '한옥담담' 한옥:시대를 담다 7월 11일부터 개최

서울시는 남산골한옥마을에서 7월 11일부터 8월 20일까지 '2023 남산골 하우스뮤지엄' 한옥담담 : 한옥, 시대를 담다를 개최한다.

'한옥담담'은 남산골한옥마을에서 여름과 겨울에 각각 개최되는 전시 프로그램으로 그림, 조형물, 공예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선보인다. 전시 부제인 '한옥담담'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선보이는 부제로, 올해는 집(屋)과 사회(社會)에 초점을 두어 그 둘 사이의 연결성과 상호관계에 집중해왔다. '시대를 담은 한옥, 재선을 담은 한옥'이라는 뜻의 제목을 통해 이번 전시의 주제를 함축적으로 담았다.

이번 전시 '한옥, 시대를 담다'는 '코로나 19'와 '거리두기 해제'라는 현시대의 이야기를 한옥에 담은 전시로, 버려진 일회용 마스크와, 플라스틱 용품으로 업사이클링한 작품을 골라주, 3D프린팅, 설치작품 등 다양한 기법과 장르의 작품들로 구성했다.

김하늘, 이혜수, 이창진, 최원서 총 네 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 남산골 한옥마을 '관훈동 민씨(閔氏) 가옥'은 주 전시장으로, ▲ 남산골 한옥마을 '삼청동 오위장(五衛將) 김춘영(金春營) 가옥'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으로 나누어져 전시를 즐길 수 있게 꾸며질 예정이다.

▲'관훈동 민씨(閔氏) 가옥 사랑채'에서는 김하늘 작가의 '마스크'를 재활용하여 만든 감각적인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으며, ▲'관훈동 민씨(閔氏)가옥 안채' 및 별당채에서는 '버려진 아크릴 조각', '장난감 파쇄물'을 활용하여 이혜수 작가만의 기법으로 재탄생된 색채 가득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그리고 ▲'관훈동 민씨(閔氏) 가옥 안채'에서는 '페트병'을 재활용한 이창진 작가의 작품이 관람객의 시선을 뺏을 예정이다. 또한 ▲'관훈동 민씨(閔氏) 가옥'의 입구와 마당에는 최원서 작가의 페플라스틱 조각을 활용한 3D 프린팅 작품이 전시의 시작을 알리며 관람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관훈동 민씨(閔氏)가옥 사랑채'에서는 페마스크를 활용하여 만들어진 김하늘 작가의 특색있는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작가는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의 수요와 그에 따른 폐기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상황에 집중했고, 하염없이 쌓여만 가는 마스크 원단을 모으고 쌓아 녹이고 굳히며, 새로운 형태의 작품들을 만들어냈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돌과 같은 질감으로 표현된 조형물 작품을 통해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더 나아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어주길 바란다

김하늘 작가는 버려지는 것이 다시 새로운 기능을 찾는 일, 지속 가능한 예술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에 초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관훈동 민씨(閔氏)가옥 안채'에서는 이창진 작가의 페페트병을 활용한, 정적이고도 역동적인 모빌형태의 조형물 '수평' 시리즈가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또한 색소 음료와 천을 활용하여 작업한 개성 넘치는 작품이 이번 전시를 이색적으로 물들일 것이다.

이창진 작가는 최소한의 재료로 작업을 하고, 완료된 후에는 각각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작업을 추구한다. 즉, 재료의 지속가능한 작업에 집중하며 작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관훈동 민씨(閔氏)가옥'의 입구와 마당에는 페플라스틱을 이용한 최원서 작가의 작품이 관람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그의 작품 '퇴적' 시리즈는 분쇄된 페플라스틱을 3D프린팅 하여 역경의 세월 이후 도래할 미래의 지층을 구현

선보일 예정이다.

이혜수 작가는 일상에서 향유하는 예술을 목표로 다양한 소재의 업사이클링 방법을 연구하며,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에 예술을 더한 비구상작업 작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관훈동 민씨(閔氏)가옥 안채'에서는 이창진 작가의 페페트병을 활용한, 정적이고도 역동적인 모빌형태의 조형물 '수평' 시리즈가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또한 색소 음료와 천을 활용하여 작업한 개성 넘치는 작품이 이번 전시를 이색적으로 물들일 것이다.

이창진 작가는 최소한의 재료로 작업을 하고, 완료된 후에는 각각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작업을 추구한다. 즉, 재료의 지속가능한 작업에 집중하며 작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관훈동 민씨(閔氏)가옥'의 입구와 마당에는 페플라스틱을 이용한 최원서 작가의 작품이 관람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그의 작품 '퇴적' 시리즈는 분쇄된 페플라스틱을 3D프린팅 하여 역경의 세월 이후 도래할 미래의 지층을 구현

한 작품으로, 현재 우리가 플라스틱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가시화한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전시의 부제인 '한옥담담'을 작가의 작품에 프린팅하여 전시의 주제를 가득 담은 상징물로서 존재할 예정이다.

최원서 작가는 주로 기성의 산업재료나 기계 공정과 같이 용도가 명확히 부여된 것들을 용도 외적으로 사용하거나, 의외의 장소에 배치 시키는 작업을 선보인다. 그는 수동적이고 귀속적인 상태에서 해방 시키고 그것들의 잠재된 이야기를 발굴하는 방식으로 그만의 작업을 이어 나가고 있다.

'한옥담담 : 한옥, 시대를 담다' 전시는 무료 전시로 운영되며 09:00 ~ 21:00 까지 관람이 가능하다. 매주 월요일은 정기 휴관일로 7월 17일, 7월 24일, 7월 31일, 8월 7일, 8월 14일 월요일은 관람이 불가하다.

자세한 내용은 남산골한옥마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한옥마을 체험전시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최원수/기자



## 활기찬 노후, 희망을 더하다...영등포구, 어르신 복지 메카로 거듭나

### 올해 7월부터 '영등포형 어르신 복지 종합계획' 본격 추진

영등포구가 어르신들의 행복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올해 7월부터 '영등포형 어르신 복지 종합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구는 경로당의 체계적 운영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시설 기반을 마련하고 영등포형 어르신 일자리 확대에 다양한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구는 IoT,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한 신개념 어르신 여가 시설인 '영등포형 스마트 실버센터'를 조성한다.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어르신 정서지원, 건강관리, 질병 예방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어르신들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정보화 교육과 프로그램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구립·사립 경로당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고 운영비 등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구립 경로당 디지털 기기 보급 ▲스마트 아파트 경로당 확충 ▲아파트 경로당 난방비 신설 ▲아파트, 사립 경로당 시설 개보수 지원 ▲중식비, 명절 운영비 증액 ▲중식 도우미 지원 확대 ▲식탁, 소파 등 임식가구 지원 ▲개방형, 특

화 프로그램 운영 등에도 적극 힘쓴다. 아울러 공공형 보다 임금이 많은 사회서비스, 민간형 일자리 확대 등 어르신 일자리 기기를 이용해 어르신 정서지원, 건강관리, 질병 예방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안정적인 어르신 소득 보장에 기여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주역인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해 현장 소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대대적인 종합계획을 마련했다"라며 "어르신 복지 사업의 지역적 시범 실시를 통해 전국으로 확산, 모든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박황신/기자

## 천안시, 2개 우수 국내기업 333억 원 투자 유치 달성

### 2개 기업의 사업 확장에 따라 233명 신규 고용 창출 등 투자협약 체결

천안시가 11일 오후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국내 우수 2개 기업과 투자금액 333억 원, 고용창출 233명 규모의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신동현 천안시 부시장을 비롯해 김태홍 충남도지사와 도내 8개 시장·군수, 15개 기업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협약에 따르면 2개 기업은 사업을 확장하면서 천안시 성환읍, 동면의 개별지 등 3만3,026㎡에 공장을 신축·이전한다.

반도체 장비 제조하는 (주)정수이앤씨는 247억 원을 투자해 성환읍 성월리 개별부지에 공장을 신설·이전하며 207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합성목재 데크를 제조하는 (주)폴리우드는 86억 원을 투자해 동면 화덕리 개별부지에 공장 신설·이전한다. 고용인원은 26명일 예정이다.



신동현 천안시 부시장은 "계속되는 경제 위기로 투자 환경이 어려움에도 이번 투자를 결정해주신 기업 대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업의 투자가 원활

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및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 이상호 태백시장, '관내 게이트볼장' 순회에 나서

### 10일~12일까지 3일간 관내 게이트볼장 12개소 순회, 다양한 의견 청취

이상호 태백시장은 생활체육인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3일간 관내 게이트볼 클럽 순회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이번 순회는 구문소 게이트볼장을 시작으로 총 12개소의 게이트볼장을 방문하여 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각 구장의 시설물 정비요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순회 첫 날인 10일(월)에는 구문소, 동점, 상장, 소도, 문곡게이트볼장을, 둘째 날인 11일(화)에는 화전, 황연, 황지, 계산, 장성게이트볼장을, 셋째 날인 12일(수)에는 백산, 철암게이트볼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문제 해결에 대한 항상 현장에 있다"라며 "시민들의 불편 사항과 건의 사항에 귀 기울이고, 관계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시민들이 행복한 태백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게이트볼장 순회에서 수렴된 시민 건의사항은 관계 부서에서 검토

한 후 추진할 계획이며,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근/기자

## 박경귀 아산시장 "신정호수공원, 전국적 이목 쏠릴 것"

아산시의 대표 휴양지인 신정호수공원이 오는 하반기 대규모 문화예술 축제로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10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주간업무보고회의에서 신정호수공원에서 열리는 대형 행사를 언급하며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인 홍보를 지시했다.

먼저 박 시장은 "아트밸리 아산 신정호섬 페스티벌(SUMMER FESTIVAL)이 이웃 천안시의 K-컬처 박람회와 같은 8월 11일~15일까지 5일간 개최된다"며 "홍행에 영향을 있겠지만, '락 페스티벌'과 '제2회 신정호 아트밸리 별빛음악제', '뮤지컬 영웅 갈라콘서트' 등 우리만의 차별화된 집객 요인은 충분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기가 얼마 안 남은 만큼, 전 부서가 관계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서주길 바란다. 유튜브 영상과 시민 영상 공모도 검토해달라"면서 "우리의 락 페스티벌은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보다 일주일 앞서 열리고, 유료 공연에서 볼 수 있는 출연진이 나오기 때문에 경쟁력이 높다. 홍보 대상은 경기도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자신했다.

박 시장은 특히 '아트밸리 아산 재즈(JAZZ) 페스티벌 위드(with) 자라섬'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이 행사는 매년 경기도 가평 자라섬 일대에서 열리는 '자라섬 국제 재즈 페스티벌'과 신정호수공원을 연계한 행사로, 시는 올해 신정호수공원 무대에서 자라섬 페스티벌 출연진의 공연을 동시에 선보일 계획을 추진 중



이다. 박 시장은 "10월 7~9일까지 자라섬 페스티벌과 아산시의 재즈 페스티벌이 동시에 열린다. 자라섬 출연진이 교차로 아산에서 공연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자라섬 페스티벌을 아산에서 분산 개최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자라섬 페스티벌은 워낙 유명하고 세계적인 행사다. 아산에서도 같은 무대가 열린다는 점을 자라섬 홍보물에 첨가할 방안을 검토해달라"며 "경상도, 전라도 지역 처럼 거리가 멀어 자라섬 페스티벌에 참여를 주저하는 재즈 마니아들이 아산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계속해서 박 시장은 이 같은 대형 행사와 함께, 신정호 지방정원사업을 위한 공간감대형성 차원에서 신정호 주변 상인전원이 참석할 수 있는 대규모 간담회 마련을 지시했다.

박 시장은 "지나해 신정호 카페와 레스토랑 등에서 열린 '100인 100색 미술전 사회'가 성공을 거둔 것은, 설명회를 갖고제가 직접 상인들에게 사업 내용과 효과를 설명한 것이 주요했다"며 "이제 섬머페스티벌과 재즈 페스티벌을 비롯해 꽃축제, K-트롯 경연대회 등 더 큰 프로젝트가 동시에 이뤄진다. 이런 종합적인 내용을 공지하고 협조를 얻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원호/기자



# '평택함' 서해대교 하부 이전 완료, 해양안전체험관 조성사업 본격 추진

평택시는 지난 9일 평택항 신컨테이너 터미널(PNCT)에 거치 중인 '평택함'을 서해대교 하부 친수공간으로 이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평택함'을 해군 홍보관 및 해양안전체험관을 조성하기 위해 2020년 2월 해군으로부터 인도받아 평택항 PNCT에 거치해 왔으며, 그간 해군의 국내 최초 수영체험관 목적의 구조변경 승인 및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의 부지 활용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인허가를 이행하여 서해대교 하부 현 부지의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7월 9일에 이전했다.

이번 '평택함'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시는 함 내 철거공사 및 인테리어공사, 수영장 조성 등 해양안전체험관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내년 3월 개장할 계획이다.

한편, '평택함'은 전장 86m, 선폭 18m 규모로, 해군의 선박구조와 예인 임무를 수행하다 2016년 12월 퇴역했으며, 주요 수행 임무는 태안 기름유



출 방제작전, 천안함 인양작전, 세월호 인양작전 등이 있다.

출 방제작전, 천안함 인양작전, 세월호 인양작전 등이 있다. 시는 지난 2021년 1월 평택함을 활용한 해양안전체험관 조성사업을 위해 사업시행자를 공모하여 사단법인 한국 해양안전협회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

정한 바 있으며, 지난 2월에 평택함을 활용한 재난안전교육장, 국가자격증시험장(수영장), 해군홍보관, 4D항법 체험관 등 해양안전체험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양시현/기자

# 약속지킨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동백고 방문해 해묵은 민원 현장에서 해결

10일 현장 함께 찾은 LH 관계자들에게 우수시설 문제 해결 요청하고, 즉시 조치 약속 받아

"지금 당장 개선할 수 있는 문제로 보이니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조속히 공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쩔지 않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왜 지금까지 방치했는지는 궁금한데 민선 8기의 용인시정은 문제를 방지하지 않고 해결하려는 적극 행정을 추구하는 만큼 속히 학교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0일 오후 기흥구 동백고등학교를 방문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폭우가 내리던 지대가 높은 인근 아파트에서 빗물이 쏟아져 학교 뒤가 진흙탕이 되어 학생들의 보행에 큰 지장을 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관계자들에게 신속한 대응 조치를 요청했다.

이 시장과 문제점을 함께 확인한 LH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곧바로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동백고등학교는 여름철 폭우 상황이 발생하면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에서 내려오는 빗물에 침수 피해를 겪어왔다. 경계면에 마련된 우수시설이 낙엽 등으로 인해 막힘 현상이 발생하는 등 배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달 30일 이 시장과 지역 내 고등학교장들의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이다. 당시 동백고등학교 조경길 교장은 침수 문제 해결을 호소했다.

간담회에서 현장 방문을 약속한 이 시장은 문제 해결을 지시했고, 시는 LH 측과 협의를 진행했다.

이 시장은 10일 동백고를 찾았고 함께 현장을 둘러본 LH 관계자들은 아파트와 학교 경계면의 우수시설에 침수정을 설치하고 동백고에 설치된 맨홀로 연결하



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상 공사기간은 단 2일, LH가 모두 진행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LH와 학교 측은 소음 문제를 피하기 위해 7월 19일 동백고가 여름방학에 들어간다면 즉시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조경길 교장은 "이상일 시장이 학교의 환경개선에 관심을 갖고 학교를 방문해 해결 의지를 밝히고, 이에 신속한 해법을 제시한 용인특례시장과 LH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 7일에는 용인고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의 통학 안전 문제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개선책을 모색하고자 했다.

용인고등학교는 인근 주택의 차량 통행과 주차 등으로 인한 학생들의 안전사

고 예방을 위해 학교 앞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주차난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반대 의견을 많이 나타내고 있어, 경찰에서도 난색을 표하는 만큼 시는 학생들의 통학 안전에 도움을 줄 또 다른 해법을 일단 모색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학교 앞 차량 통행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학교 인근 공원 쪽에 학생을 태운 학부모들의 승용차가 정차해서 학생들을 내려 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 시장은 "학교 환경개선과 학생들의 안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작은 문제라도 개선하는 일을 시가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만식/기자

# 안성시,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은 '현재 진행 중'

안성시 대내외 청렴 문화 확산과 공직기강 확립 추진

안성시는 7월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60여명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반부패 청렴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강사 양성과정 수료한 내부청렴 강사가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및 갑질금지 등의 내용을 안성시 사례와 접목해 강의함으로써 교육 효과가 배가 됐다.

김보라 안성시장도 이날 교육에 참석해 "오늘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청렴교육이 평소 고민되고 갈등이 되는 사례에 대한 해결방안을 얻게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오늘 교육 받은 내용을 각 부서 직원들에게 공유해 우리 모두 청렴한 안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라는 당부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시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평가에서 2020년~2022년 3년 연속 2등급을 달성한 것에 이어,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을 목표로 각종 청렴정책 추진과 함께 부패 척결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여러 노력을 펼쳐오고 있



다.

특히 올해는 김보라 안성시장 주재로 '안성시 반부패 청렴 추진 회의체'를 운영하면서 각종 청렴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돼 대외적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15개 읍면동 기관사회단체 등 대상 '찾아가는 시민친화 청렴교육'을 7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조직 내부적으로 신규

9급 및 임기제 공무원, 6·7급 승진 공무원,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계층별 반부패 청렴 교육을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총 4회 실시하고 최근 정기인사 및 하계휴가철 분위기에 편승해 해이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점검 또한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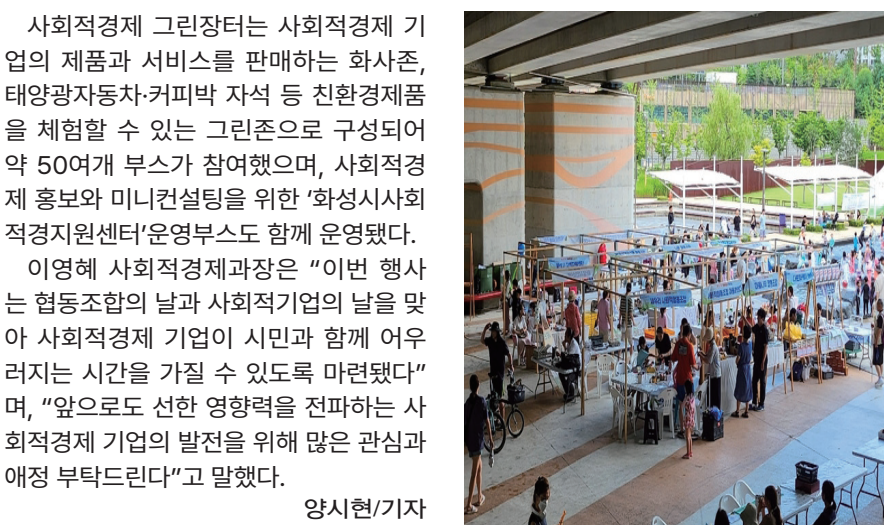
양시현/기자

# 화성시, '2023사회적경제 한마당' 개최

화성시가 8일 동탄호수공원에서 2023년도 협동조합의 날과 사회적기업의 날을 기념하여 2023 화성시 사회적경제 한마당을 개최했다.

함께 있는 화성, 함께 있는 세상이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사회적경제 기념식 △시민에게 쉽게 다가가는 사회적경제를 위한 '사회적경제 골든벨' △화성시 청년예술단 앙상블 등 5개 공연 △화성시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과 서비스를 홍보·판매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린장터' 등으로 구성됐다.

기념식은 주요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공연, 유공자 시상, 인사말씀 및 축사, 동영상 시청,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양시현/기자

사회적경제 그린장터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화사촌, 태양광자동차-커피박 자석 등 친환경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그린존으로 구성되어 약 50여개 부스가 참여했으며, 사회적경제 홍보와 미니컨설팅을 위한 '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운영부스도 함께 운영됐다.

이렇게 사회적경제과정을 "이번 행사는 협동조합의 날과 사회적기업의 날을 맞아 사회적경제 기업이 시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 이천시, 첨단 일일모기발생장치 및 드론 방역 큰 성과

이천시에서는 시민행복과 감염병 매개 곤충(모기)의 과학적 방역을 위해 최첨단 일일모기발생감시장치(DMS) 및 드론 방역 등을 병행 수행하고 있다.

이천시는 그동안 6개 기동반을 운영하며 현장조사 및 시민들의 신고로 모기를 방역하는 방식과 더불어 주요 거점 지역에 이산화 탄소를 이용하여 모기를 유인 및 자동 계수하는 일일모기발생감시장치(DMS)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과학적 근거 기반으로 방역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1개의 드론 방역팀을 별도 운영하여 사람이나 차량이 출입하기 어려운

사각 지역까지도 방역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실제로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첨단 방역의 영향으로 방역 약품 사용량 및 모기 개체수가 약 30%정도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진드기 및 해충 기피제 자동 분사기 6대를 시범 설치·운영하여 이천시민이 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소통 방역을 진행 할 예정이다.

보건소 방역 관계자는 "이상기온 등의 이유로 모기 및 기타 해충에 따른 민원이 증가하고 있지만 지역 특성에 맞춘 방역

소독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체감하는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스스로도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방충망 설치 및 야외 활동 시 기피제 뿌리기 및 주변 물 웅덩이 정리 등 청결한 환경 만들기에 동참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성윤/기자



# 전진선 양평군수, 서울-양평 고속도로 재추진을 위한 주민 설명회 가져

양평군은 11일 오후 3시 양서면 증동리 소재 대야교회에서 전진선 양평군수를 비롯한 윤순옥 양평군의회 의장, 오혜자 의원, 여현정 의원, 최영보 의원 및 양서면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양평 고속도로 주민 설명회를 가졌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국토교통부 시행으로 남부시에서 광주시를 통해 양평으로 연결되는 총사업비 1조 7천억원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으로 양서면 증동리, 청계리는 고속도로 당초안의 종점부가 연결되는 곳으로 700여 가구가 살고 있어 고속도로 건설 시 직접적인 영향 받는다.

이날 설명회에서 양평군 도시개발국장(안철영)은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2019년 4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 개최 여타사업에 선정됐으며

당시 여타안에는 증동리, 청계리 지역에 분기점이 연결되는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국장은 "23년 1월 국토부의 노선검토 협의 시 당초 여타안은 양평에 IC 계획이 없어 양평을 관통하는 고속도로에 주민 교통 편의를 위해서는 IC가 반드시 필요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강상을 분기점으로하는 강하IC를 설치하는 변경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양서면을 분기점으로 하는 당초안과 강상면을 분기점으로 하는 변경안을 비교하면 당초안은 양평군 내 IC 설치가 불가하고 600m 이상 교각을 세워야 인근 마을이 양분화 되고 주민불편 초래가 심각하다.

그러나 변경안을 검토하면 양평군 내 IC 설치가 가능해 양평 주민들이 서울 왕래가 편해지고 교통량 또한 당초안

은 하루 15,800대에서 변경안은 하루 22,300대를 소화해 변경안이 교통량 분산에 효과적이라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증동리 거주 주민은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반드시 재추진 되기를 희망한다"며 "증동리, 청계리에는 700여 가구가 살고 있어 당초안이 결정될 시에는 소음, 분진 등 주민피해가 막심하여 반드시 도속도로는 건설되어야 하지만 주민의견을 잘 수렴해서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결정해 달라"고 말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오늘 나온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고속도로 사업이 되길 희망한다. 고속도로 사업은 양평 군민의 영원"이라며 "양평을 위한 고속도로 사업 재개에 같은 목소리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성윤/기자

# 시흥시,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서 통합 건강증진사업 종합부문 '최우수' 기관 선정

시흥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3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 평가 결과 종합 부문에서 '최우수' 기관 표창을 받았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지자체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생활 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 등 사업을 통합해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게 기획하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258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2023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 및 운영 성과 등을 종합해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시흥시는 경기도 1위를 차지했다.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 컨벤션에서 열린 제15회 지방자

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시는 최우수기관 표창과 함께 1,35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시는 금연과 운동, 영양, 치매 관리, 방문 건강관리 등 11개 영역의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통해 맞춤형 건강증진과 건강환경 조성, 건강습관 개선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로써 9년 연속 수상의 기쁨을 누리게 됐다.

방호설 시흥시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 형평성을 높이고, 건강 수명 연장을 위해 주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 또한, '건강도시 시흥'에 걸맞게 건강 환경 조성 및 맞춤형 건강 정책 추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신우용/기자





###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성과, 적극적으로 알려야” 수원시, ‘2023 학교사회복지사업 정책토론회’ 개최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을 발전시키려던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정책적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수원시가 1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2023 학교사회복지사업 정책토론회’에서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 발전 전략’을 주제로 발제한 최은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는 “위기 아동 보호 등 청소년정책에서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성과와 역할을 강조해야 한다”며 “시민, 학부모, 교사 등에게도 학교사회복지사업 정책을 적극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한 이날 정책토론회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의 인사말, 최은 교수의 주제 발제, 패널 지정토론, 질의응답으로 이어졌다.

이승현 오산대 사회복지상담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는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현경환 부위원장·박영태 위원, 이철규 효동초등학교 교장, 김광래 동성중학교 교장, 조승원 수원시 시민협력국 평생교육과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추진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한 현경환 의원은 “학교사회복지사업은 맞춤형 상담, 가정 방문, 지역 연계 등을 지원하며 학교복지 실현을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수원시는 2011년부터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해 오며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향상 등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했지만, 사업의 지속성을 판단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에서 효과성·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준 수원시장과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 이재식 부의장, 학부모, 학교장, 학교사회복지사업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준 시장은 “열정을 다하시는 학교사회복지사업 덕분에 많은 학생이 상처를 치유하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우리 시 학교사회복지사업은 경기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운영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적 어려움에 부딪혀 5년 후 사업 일몰이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이 원하고,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학교사회복지사업이 길을 잃지 않도록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1년 시작한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은 학교에 사회복지사를 배치해 학생들에게 상담, 교육, 인권 보호 활동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학교에 사회복지사를 운영하고 사회복지사는 학생·부모·교사 상담, 가정방문,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2011년 4개교에서 시작해 올해는 초등학교 45개교, 중학교 4개교, 특수학교 1개교 등 50개교에서 사회복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2022년에는 53개교에서 사회복지사를 운영한 바 있다.

최만식/기자

## 경기도민이 기대하는 인구정책은?...경기도, 제12회 인구의 날 기념식 개최

### 인구문제 도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11일 인구의 날 기념식 개최



경기도는 11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인구친화적 문화 확산’을 주제로 제12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지회가 주관한 기념식에는 수상자 등 도민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저출생·고령화 대응에 기여한 개인과 기관에 대해 표창과 함께 ‘인구 친화적인 사회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이대양 음악웹툰 작가의 도민특강을 진행했다.

도는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300여 명의 도민이 참여한 소망 키워드를 모아 영상으로 제작, 이날 첫선을 보였다.

도민들은 기대되는 경기도 인구정책으로 ‘청년 주거 안정’, ‘베이비부머 재도약 기회 지원’, ‘장애인 기회수당’, ‘경기청년 사다리’, ‘다함께 돌봄센터’ 등을 꼽았으며 ‘남성 육아휴직 확대’와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남임부부 지원 확대’에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박노국 도 정책기획관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 살고 있는 ‘작은 대한민국’ 경기도는 그동안 저출생 대응과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대책을 마련해왔다”라며 “경기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더 많은, 더 고른, 더 나은 경기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8일부터 14일까지를 경기도 인구주간으로 지정, 경기도 아빠하이! 명

사 특강, 청소년 인구교육, 인구인식도아리 기획 활동, 청소년 인구 뮤지컬, 100인의 아빠단 체험 프로그램 등 인구문제에 대해 도민과 함께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최만식/기자

## 박승원 광명시장 “탄소중립 스마트도시가 광명시의 미래”

### 광명시, 11일 스마트도시·스마트건설 실현전략 시·산·학 세미나 개최

박승원 광명시장이 광명시의 미래를 위해 탄소중립 실현이 가능한 스마트도시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11일 오후 광명시평생학습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스마트도시·스마트건설 실현전략 시·산·학(市產學) 세미나’에 참석해 “광명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설사업이 과거의 낡은 방식으로 진행되어서는 광명시 미래에 희망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시·산·학 협력을 통해서 모든 전문가의 뜻과 의지를 모아 스마트도시 건설 전략을 올바로 세우는 것이 광명시를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역설했다.

재개발, 재건축을 비롯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광명·시흥테크노밸리, 하안2공공택지지구 등 대규모 건설공사로 향후 20년 동안 광명시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탄소중립을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면서 스마트시대를 조성하고 스마트 건설 산업을 육성해 광명시 미래 100년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날 김수삼 한양대 명예교수는 광명시의 스마트도시 추진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광명시를 완벽한 스마트도시로 만드는 최초의 사례이자 스마트도시의 핵심 기지로 만들도록 다 함께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김학성 한양대 링크3.0사업단장은 “광명시와 같이 적극적으로 진취적인 파트너를 만나서 감사하다”며 “한양대는 광명시의 스마트도시 추진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박승원 광명시장, 김수삼 한양대 명예교수, 박관민 AI기반건설산업연합회(AICIA) 회장, 김학성 한양대 링크3.0사업단장과 시 유관부서 공무원, 광명시 기업 및 스마트 건설기업 임원, 한양대 교수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조성민 도로공사 스마트건설사업단장의 ‘스마트건설기술 현황과 전망’ ▲광명시의 ‘광명시 건설사업 현황과 추진 계획’과 ‘스마트시대를 위한 녹색건축’ ▲김환용 한양대 교수의 ‘디지털트윈

과 스마트시티 개발’ ▲송세경 카이스트 교수의 ‘생성AI 기술융합’ 발표 등이 진행됐다.

이어 AICIA 회원 기업에서 ▲DfMA(제조 및 조립을 위한 설계) 기반으로 비정형 건축기술을 선도하다(위드웍스) ▲스마트시대를 위한 이음 5G(유캐스트) ▲BIM(건설정보모델링) 기반 디지털 건설사업 관리(한울씨엔비) 등 AI 기반 스마트 건설 기술을 소개했다.

시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한양대, AICIA와 시·산·학 협력을 본격화하고, 국토부 주관 스마트시티 공모사업 참여 등 스마트시티 조성 및 스마트 건설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윤용민/기자

### 여름방학 맞이, 경기도박물관에서 드로잉 팝업스토어 운영

경기문화재단 뮤지엄지원단은 오는 7월 18일부터 경기도박물관에서 드로잉 카페 ‘성수미술관’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이 팝업스토어는 박물관 로비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관람객과 지역사회 문화공간 재탄생을 기대하는 ‘뮤지엄 커뮤니티파크’ 일환으로 올해로 3번째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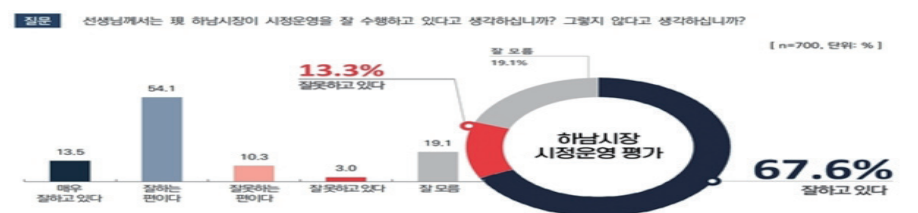
관람객들이 손쉽게 유물을 접할 수 있도록 구상한 도안은 총 4종이다.

‘구자도’는 장난치며 뛰노는 강아지 두 마리를 간결하게 그린 그림이다. 섬세한 필치로 동화적이며 따뜻한 분위기를 잘 나타내어 아이들 연령대에서 인기 많은 유물이다. ‘십장생도’는 불로장생을 상징하는 열 가지 동물 및 식물소재로 그린 그림으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궁중 양식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청자 모란 넝쿨무늬 호’ 도자기는 역삼각 기법을 표현한 조각이다. 모란과 넝쿨무늬가 돋보이며 형태의 당당함이 13세기 청자의 일면을 잘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팔사품도’는 명나라 황제 신종이 임진왜란에서 이순신에게 보여준 전공을 포상하기 위해 여덟 종류의 군사 기물을 선물한 그림이다. 그 중 호두형 패에 해당하는 부분을 도안으로 표현하여 용맹한 기세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이 유물들은 다양한 문화상품으로도 개발되어 뮤지엄숍에서 만나볼 수 있다.

팝업스토어는 오는 7월 12일부터 지지씨멤버스를 통하여 예약할 수 있으며, 현장 진행은 7월 18일부터 진행된다. 경기도박물관 2층 로비에서 운영되고, 문화상품 할인 이벤트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을 확인할 수 있다.

최만식/기자

## 하남시민 67.6%, “이현재 시장, 시정 운영 잘한다” 평가



민선8기 이현재 하남시장이 출범 2년 차로 접어들 가운데 하남시민 67.6%가 ‘잘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시정운영 평가 67.6%, 행정 서비스 만족도 68.5%

‘이현재 하남시장 시정 운영 평가’에서 하남시민 67.6%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잘못하고 있다’(13.3%)의 5배 이상 높은 수치로, 지난해 12월 여론조사 결과(67.4%)와 비교해도 0.2%p 상승했다. 이들 중 13.5%는 ‘매우 잘하고 있다’며 강한 만족감을 드러냈고, 54.1%는 ‘잘하는 편이다’고 응답했다.

‘행정서비스 만족도’ 평가에서는 시민 68.5%가 ‘만족한다’고 답해 지난해 12월 여론조사 결과(64.2%) 보다 4.3%p 상승했다. 이러한 결과는 하남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고규형정서비스에 대한 기대와 만족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또한 하남시 거주 여건에 대해서는 시민 94.8%가 살기 좋다고 답했다. 거주 환경 중 만족스러운 부분은 ‘자연 환경’(71.2%), ‘도로·교통’(31.5%), ‘문화 및 여가 생활’(21.6%) 순으로 나타났다.

■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운영...의견 수렴 55.7%→61.4%

여론조사에서 하남시가 시민의 의견을 잘 수렴하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시민 61.4%는 ‘잘하고 있다’라고 응답, ‘잘못하고 있다’(20.9%)의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는 지난 12월 여론조사(55.7%)와 비교해도 5.7%p 더 높다.

이 같은 결과는 민선 8기 하남시가 시민 소통시스템(윈-스톱 하남민원)을 신설하고, 시민참여혁신위원회·정책모니터링단 등 운영을 통해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하남시는 황토 산책길 보행을 통해 심신의 피로를 치유하고 싶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 4월 풍산근린3호공원에 ‘하남시 1호 황토 산책길’을 조성하고, 풍산동의 명칭을 변경하고 싶다는 여론조사 결과(참여세대 94% 찬성)를 반영해 지난 5월 ‘미사3동 명칭 변경’을 실행하는 등 시민 의견을 수렴한 적극행정으로 만족감

을 높인 바 있다.

아울러 구산숲 둘레길 조성(8월 예정), 덕골굴 등산로 보안등 설치, 한강 독방 모래길(4.6km) 조성, 미사호수공원 뿔나무 식재 및 명찰달기 등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자연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 대중교통 편의성 향상...교통 개선 ‘12.2%→24.3%’

‘지난 1년간 가장 많이 개선된 분야’로 ‘교통’(24.3%)을 꼽았다. 이어 ‘도시개발’(17.7%), ‘환경·안전’(14.1%), ‘소통행정’(8.1%) 등 순으로 높았다. 교통은 지난해 12월 여론조사(12.2%) 대비 2배 가까이 높아진 수치를 나타냈다.

민선 8기 하남시는 취임 직후 5호선 출퇴근을 6회 증회하고, 출근 배차시간은 7분대로 단축했다. 또한 위례·갈매신도시에 부르면 오는 ‘수요응답형 버스’(DRT) 6대를 8월 중 투입하는 등 총 10개 노선에 버스 6대 신설·증차를 확정했다.

■ 미사아일랜드 GB 해제 발판...K-스타일드 지역발전 도움 ‘59.3%’

시민들은 여론조사에서 ‘K-스타일드 지역발전 도움 여부’ 질문에 전체 59.3% 비율로 ‘도움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콘텐츠 생산으로 시 이미지 변화’(34.2%), ‘관광객 유입 기대’(29.4%), ‘일자리 증가’(18.6%) 등 순으로 높았다.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 하남시에서 중소기업 규제발굴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국무총리 주제 중소기업 규제 개혁 토론회 참석, 국무총리-국토부·환경부 장관 면담 등을 통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했고, 지난 2월 국토부는 수질에 대한 환경평가등급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그린벨트(GB) 해제 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사아일랜드의 개발 가능성이 열린 바 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하남시 거주 만 19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6일부터 26일까지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7%포인트이다.

박강호/기자

## 인천시 유정복 시장, 세계 10대 도시로 진입 목표로 경주

### 확대간부회의 개최, 세계 10대 도시를 위한 시정현안 점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7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인천이 세계 10대 도시로 진입하기 위해 시장과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뛰어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광역시는 11일 갯벌타워 국제회의장에서 유정복 시장 주재로 2023년 7월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해, 세계 10대 도시를 위한 시정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시정 계획을 공유했다.

이날 확대간부회의에는 시 분청 4급 이상 간부 공무원과 직속기관장을 비롯해 군·구 부단체장, 공사·공단 기관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유 시장은 앞서 지난달 열린 1주년 기자브리핑에서 제시한 인천의 미래상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적절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모두가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시민행복 버스 교통대책, ▲서해-한강 연결 사업계획 및 진행 사항, ▲1,000만 도시 인천 프로젝트 추진 현황, ▲재외동포타운 추진계획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범국가적 행사로 격상해 추진되는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행

사 추진계획과 준비사항을 공유했으며, 실·국별 주요 현안의 추진계획도 논의했다.

유 시장은 올해 4년 만에 엘리뇨가 예상돼 평년에 비해 더 많은 폭우와 폭염이 예상되는 만큼, 여름철 재난 대응에 철저하게 점검하고 장마와 무더위에 취약계층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사전에 긴급대응체계를 정비하여 군·구와 함께 꼼꼼히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특히, 유 시장은 “우리가 1년차에 이룬 성과를 발판 삼아 세계 10대 도시로 성장

시키기 위한 구체적 노력을 더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하며 “재외동포청을 유치한 지역으로 2025 APEC 정상회의와 인천고등법원·해사전문법원 유치도 해낼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1년차에 이룬 것도 많지만 민선8기 2년차에 해결해야 할 숙원과제도 많은 만큼 모든 공직자의 역량을 모아 인천시민의 염원과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종남/기자



**경기도박물관 x 성수미술관 팝업스토어 오픈**

경기도박물관에서 특별전 ‘도로잉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특별전  
10월 10일~10월 15일  
11월 10일~11월 15일  
12월 10일~12월 15일  
2023. 10. 10. ~ 12. 15.

전시  
경기도박물관 특별전 (2023. 7. 18. ~ 8. 20)

2023. 7. 18. ~ 8. 20



# 경북도, 베타카로틴 참외 수직 수경재배 기술 개발

## 참외 재배 농업로봇 적용 위한 새로운 애그테크(Ag-tech) 기술 소개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농업로봇을 이용한 참외 재배기술 개발을 위한 첫 단계로 베타카로틴 참외 수직재배 기술을 개발하고 11일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에서 품평회를 개최했다.

베타카로틴 참외는 베타카로틴 함량이 107mg/kg이 함유된 기능성 품종이며, 당도가 일반참외보다 5브릭스(Brix·당도측정단위) 이상 높은 멜론과 참외를 접목한 프리미엄 과실로 과육이 두꺼워 수경재배에 적합하다.

이날 품평회에서는 기존 포복 재배하는 참외를 수직재배로 전환하는 기술을 선보였으며 수경재배를 통해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농업로봇 이용에 적합한 재배환경을 구현했다.

특히, 행잉베드를 이용해 베타카로틴 참외를 수직재배하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기존 수직 유인재배에 소요되는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켰다.

현재 참외는 252시간(300평 기준)의 노동시간이 필요한 작물로 이번 개발된 수직재배를 통해 1/3정도 시간을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베타카로틴 참외는 롯데백화점 등 프리미엄시장에서 판매되며, 홍콩 등 동남아시아 수출 등이 협의되고 있어 향후 재배 농가 교육 및 인프라 확대를 통해 수출작목으로 생산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영숙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은 “농업은 대표적인 노동집약 산업이지만 빅데이터, IoT, AI, 로봇기술 등이 도입되면서 첨단산업으로 급격히 탈바꿈하고 있다. 경북도를 대표하는 지역특화작목인 참외가 애그테크(Ag-tech)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재배기술을 혁신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의성군, 인구의 날 유공 대통령상 기관 표창 수상

## 전국 226개 기초자치체 중 유일 수상 쾌거

의성군이 7월 11일 세종에서 개최된 보건복지부 주최 ‘2023년 제12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에서 저출산고령사회 등 인구문제 대응에 기여한 공로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인구의 날” 유공 포상은 ‘인구의 날’이 제정된 의미를 알리고 인구정책 확산에 기여한 개인, 법인 및 단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의성군은 차별화된 출산장려·양육·청년 사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하여 출산율 증가 및 인구 구조의 질적 개선에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의성군은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출산장려금 지급 확대 ▲3대 필수 의료체계(외래산부인과, 응급의료기관, 소아청소년과) 강화 ▲출산통합지원센터 운영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등 차별화된 결혼·출산·육아 정책 추진하여 합계출산율의 증가와 함께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더불어 ▲다자녀장학금 지원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 등 다자녀 지원 정책과 ▲의성형 아동운동일일돌봄체계 구축 ▲향토인재양성원 운영 ▲조문국박물관 가족친화공간 조성 ▲가

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의성군은 청년일자리·주거단지·복지체계를 두루 갖춘 ‘이웃사촌시범마을’을 조성하여 인구감소 위기 극복 대표 모델로 발전시키고, 청년들을 중심으로 농촌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청춘구 행복동 ▲셋별탐사대 ▲예술가 일촌마켓 ▲1시간-1특화생활인구 프로젝트 등 맞춤형 지역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외지 청년의 지역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년의 주거·복지·일자리 등을 위해 ▲창업허브센터 ▲청년테마파크 ▲청년 인큐베이팅 공유공간 ▲청년과피방 등 공유공간과 ▲포스코 연계 모듈 하우스 조성 ▲스마트팜 교육생 전용 컨테이너 하우스 증축 ▲금수장 리모델링 등 청년 임시주거공간 인프라를 구축했으며, 현재 의성도동지구 행복주택과 의성안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 중이다.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사업의 확장성을 위해 “청년발전 기금” 20억원을 조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인구교육 ▲일·가정 양립 교육 등 주민 대상 인구교육으로 인구 위기 공감대 형성 및 인식 개



선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는 저출산·고령화 심화 등 인구변동에 따른 의성군 미래사회 변화 모습을 예측하고 인구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인구정책 로드맵인 미래인구맵 설계 용역을 추진하며, 보다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책을 발굴하여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해 갈 방침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유일의 대통령 기관표창을 5만 군민과 함께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는 대책으로 알고 그 동안의 성과와 기쁨을 바탕으로 지역이 경쟁력을 가지고 군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 수 있도록 취약한 분야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지역특화형 인구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안동시, 2023 '시원한 여름나기 지원사업' 물품 배분식

안동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지난 7월 폭염취약계층의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한 다양한 물품 키트를 각 기관으로 배분했다.

이날 물품 배분식에는 권기창 안동시장이 참석해 차분과 경계가 없는 복지도시 구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여름나기 물품은 파워푸드기프트세트(종합비타민, 홍삼푸드)영양제(2종), 손선풍기, 타올, 양산, 모기약세트, 미숫가루, EM그린풍, 향균팩 종합세트 등 10여종(10만원 상당)으로 여름철 건강 지키기에 유용한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품들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및 24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240가구에 가가호호 방문 전달된다. 각 기관에서는 물품 전달과 함께 안부도 확인해 지역 내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은 없는지 꼼꼼히 살핀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시원한 여름나기 물품 지원을 통해 폭염속 취약계층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내기를 바라며, 우리 안동시도 이상 기후 변화에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대구 북구, 영상으로 먹거리골목 알리기 나서

## 동천역 먹거리타운, 이인성사과나무 맛집골목, 고성동 벚꽃골목 총3편 제작

대구 북구는 먹거리골목 특색에 맞는 참신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지역 대표 관광지와 먹거리 골목 알리기에 나선다.

북구는 관광 명소와 대표 먹거리를 알리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먹거리골목 10개소 중 올해 3개소를 선정하여 홍보영상을 제작했다.

3호선과 인접해 접근성이 뛰어난 ‘동천역 먹거리타운편’, 대구출신 천재화가 이인성의 벽화를 품고있는 ‘이인성사과나무 맛집골목편’, 봄철 아름다운 벚꽃이 만개하는 ‘고성동 벚꽃골목편’과 같이 총 3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편당 하나

의 골목을 집중적으로 소개하여 대중에게 콘텐츠에 대한 집중도와 완성도를 높였다.

이번에 제작된 홍보영상은 구청 홍보관, SNS, 주요 지역 축제 및 행사 시에 상영하는 등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만나 볼 수 있다.

먹거리골목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먹거리골목 영상 제작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며, 추후 북구에 소재한 다른 먹거리골목 또한 영상에 담아낼 예정이다.

이영숙 보건소장은 “먹거리골목 홍보영



상 제작을 통해 관내 관광 명소 및 대표 먹거리를 널리 알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

로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지역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동현/기자

# 울진군, 경로당 행복선생님 지역특화사업 기성면 다천2리 ‘친환경 벽화마을’ 조성

울진군은 지난 8일 경로당 행복선생님 지역특화사업 일환으로 진행된 기성면 다천2리 친환경 벽화마을 조성을 마무리했다.

기성면 다천2리 경로당 벽화는 6명의 어르신들이 경로당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여 페스티코를 활용하여 그린 그림으로 2022년 8월 17일부터 시작되어 2023년 4월 28일까지 총 42회차가 진행됐다. 경로당 앞 내벽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제로 한 친환경 스티로폼 벽화 209점이 부착, 외벽에는 4계절의 그림이 다채롭게 그려졌다.

특히 외벽에 그려진 벽화는 울진군과 경일대학교의 협업으로 이루어진 공동 프로젝트로 경일대학교 교수진 3명과 15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하얀 콘크리트 벽을 다양한 색감의 아름다운 벽화로 재탄생하게 됐다.

이번 다천2리 친환경 벽화는 환경 보호 및 지속 가능한 생활에 대한 인식을 촉진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 재활용에 대한 환경 보호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의 미관을 향상시켜 눈에 띄는 예술작품으로 자리매김할 것

로 기대된다. 장영옥 사회복지과장은 “다천2리 친환경 벽화마을 조성을 마무리했다. 환경 벽화가 어르신들에게 자존감과 사회 참여의식을 높여 경로당 활성화에 기여하여 큰 역할을 한 만큼 앞으로 지역사회에 소중한 문화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장문화/기자



# K트로트 '대구의 맛!' 대구 신세계 백화점에서 올려 퍼진다!

## K트로트 '대구의 맛!' 향토 음식 대구 10미(味) 알리는 첨병

대구광역시는 미식의 도시 대구의 매력을 알리고 '대구 10미(味)'의 브랜드화와 지역 음식업계 활성화를 위해 세미 트로트 풍의 노래인 '대구의 맛'을 제작한 바 있다. '대구 10미(味)' 활성화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올해 7~8월 기간 중 대구 신세계 백화점에서 K트로트 '대구의 맛' 음원을 송출해 '대구 10미(味)'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다.

대구시는 작년 9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대중가요를 통해 대구 10미(味)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 음식업계 활성화를 위하여 K트로트 '대구의 맛'을 제작한 바 있다. 그 간, 대구시는 2022년 대구음식산업박람회 소개이슈를 통해 가수 김나희의 '대구의 맛'을 공개했고, 한국도로공사(대구경북본부)와의 협약 추진으로 23년 상반기 동안 전국의 17개 휴게소에서 '대구의 맛'을 송출해 대구 10미(味) 브랜드를 알리는 데 주력했다.

또한, 대구광역시 가수협회(영남중앙회) 노래 교실 곡목으로 선정해 지역에서 활동하는 가수들에게 K트로트 '대구의 맛'을 소개했으며, 작년 9월부터 일반 음식점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시 K트로트 '대구의 맛'을 교육 자료에 포함해 대구 10미(味)를 홍보하고 대구 음식의 정체성과 역사를 알리는 데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번에 대구시는 대구 신세계 백화점과 함께 백화점 내 문화홀 및 교육실 등의 프로그램을 활용해 '대구의 맛' 음원 홍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7-8월 기간 중 문화홀 2회(월 1회), 교육실 8회(주 1회) 정도 '대구의 맛' 음원을 송출해 백화점을 이용하는 고객 및 백화점 종사자들에게 대구 10미(味)를 알

릴 계획이다. 특히 '갯바위'와 '가슴앓이' 등의 히트곡으로 유명한 포크를 기반으로 한 싱어송라이터인 가수 양하영 씨의 콘서트가 다가오는 7월 21일 14시에 대구 신세계백화점 문화홀에서 열리는데 이날 '대구의 맛' 음원을 콘서트 전후로 송출해 홍보할 계획이다.

향후 대구시는 대구 신세계 백화점을 비롯해 지역 내 대형 유통업체 및 외식산업 관련 민간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 '대구의 맛' 음원을 통해 대구 10미(味)를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정의관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장은 “대구 10미(味)의 브랜드화와 대구 외식업계 활성화를 위해 만든 K트로트 '대구의 맛'은 대구 음식 특유의 화끈한 맛을 알리는데 적합한 멜로디 라인과 가사를 갖춰있어 누구나 한번 들으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매력 있고 리듬감이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대구를 표현하기에 안성맞춤의 노래다”며, “노래가 히트하고 이로 인해 대구 음식이 알려지고 더 나아가 대구 음식업계가 활성화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영양군, 국제로타리 3630지구 영양로타리클럽 사랑의 쌀 후원

국제로타리 3630지구 영양로타리클럽은 11일 경상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영양분관에서 '사랑의 쌀' 나눔 전달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쌀은 3일 제 50대-제 51대 회장단 이취임식 행사에서 축하기념 화환을 대신해 받은 백미(20kg, 30포)를 저소득 재가 장애인 가정에 기탁했다.

김택규 회장은 “취임을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의 소중한 마음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희망으로 전달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회원들과 함께 화합하며 초아의 봉사

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양분관 최은영 관장은 “평소 지역사회를 위해 숭선수범하고 따뜻한 정을 전하는 영양로타리클럽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관내 저소득 장애인 가정에 소중한 후원 물품과 함께, 후원하신 분들의 따뜻한 마음도 잘 전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양로타리클럽은 관내 중·고·대학생 장학금 전달, 농촌봉사활동, 수해복구 동참, 집수리 봉사, 등 꾸준한 지역사회에서 나눔활동을 펼치고 있다.

윤근수/기자





### 2023년 초복맞이 DGB푸드트럭 경산사랑 이벤트 눈길



DGB대구은행 경산영업부(센터장 신용필)는 11일 경기 불황과 무더위에 지친 경산 시민들과 공무원들을 응원하기 위해 '초복맞이 일일 푸드트럭'을 운영했다. 지난 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푸드트럭 행사는 조현일 경산시장과 박순득 경산시시장, 황병우 대구은행장, 이상현 경산시청 공무원 노조위원장 등이 함께해 시청을 방문한 시민들과 직원들에게 음료

를 나누주며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매년 지친 시민들을 위해 지역 은행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대구은행과 관계자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작은 커피 한 잔이 시민들과 직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휴식을 제공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송광삼기자

## 경북도, '하회과학자마을' 신도시 랜드마크로 본격 조성

이철우 지사  
"하회과학자마을, 지역 발전 신동력으로 만들겠다" 강조

경북도가 은퇴(예정) 과학기술인들의 풍부한 연구 경험과 축적된 지식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신개념 연구단지 '하회과학자 마을'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1일 경북도청에서 '하회과학자마을'을 조성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이우일 대통령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과 김무한 포항공단 총장, 최도성 한동대 총장, 정태주 안동대 총장, 김상동 경북도립대 총장 등 학계에서 많은 인사들이 참석했다.

또 박원석 前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 박진서 구글 클라우드 이사 등 연구기관과 기업 등에서 40여명의 고위급 인사가 참석해 '하회과학자마을'에 대한 대내외의 관심을 증명했다.

특히, 한상철 한전공대 기획처장은 부부가 함께 참석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간담회는 하회과학자마을의 설립 취지와 건축 계획,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참석자들의 질의응답과 건의 순으로 진행됐다.

'하회과학자마을'은 이철우 도지사의 핵심공약으로 이미 건축은 물론 운영 방식 면에서 상당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북도는 하회과학자마을의 건축물부터 랜드마크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미 도청 신도시에서 가장 전경이 뛰어난 지역에 부지 선정을 마치고, 천년을 가는 건축자재를 활용하고 유명 건축가를 참여시켜 2025년까지 '21세기 하회마을'을 모델로 하는 명품단지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전통과 첨단을 융합한 건축물을 지어 영상의실, 컨벤션, 공유 오피스, 커뮤니티 시설 등을 함께 담아내 입주 과학자들이 자연 속에서 거주하며 자유롭게 연구하는 '글로벌 워케이션(Worcation) 모델'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건축과 함께 홍보 및 입주자 선정, 운영 방안 논의도 구체화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입주자 선정위원회 구성 작업도 진행되고 있으며, 이미 각계에서 많은 추천과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경북도는 하회과학자마을 입주자들은 우선 경북연구원 석좌연구원으로 위촉해 국제 프로젝트 유치 등에 활용하고 대학과 연계한 강의, 기업·연구기관과 연계한

R&D 수행은 물론, 창업까지도 적극 지원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우일 대통령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은퇴과학자마을은 국가적, 시대적으로 매우 시의적절한 프로젝트다. 경북의 모델이 성공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은퇴 과학자들은 한분 한분이 도서관 같은 소중한 자산이다. 하회과학자마을을 21세기 하회마을, 도산서원으로 반드시 성공시켜 국가와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원으로 삼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윤근수기자

### 봉화군, 시원한 여름나기 물품 지원 "건강하게 여름 나세요"



봉화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0일 관내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시원한 여름나기 지원사업' 물품을 전달했다. 시원한 여름나기 지원사업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최하고 경북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봉화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하는 사업이다. 폭염에 취약한 관내 저소득층 190세대에게 10만 원 상당의 물품(비타민, 양우산, 손선풍기 등 10종)을 전달해 혹서기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물품 키트는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희망복지지원단, 장애인시설단체, 봉

화요양원, 노인복지관 등을 통해 폭염에 취약한 주민들을 발굴하여 전달할 예정이다. 명호면 이OO(여, 88세) 어르신은 "무더운 여름에 손선풍기와 비탄민 등 더위를 이길 수 있는 물품을 전해줘 고맙다."라고 전했다. 박현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올해는 수해에 이어 폭염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인데 더위에 취약한 군민들이 건강한 여름을 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정금자기자

### 영주시, 즐거움 ONE해요? '영주 시원(ONE)축제' 29일 개막

#### 올해 시작하는 여름 축제, 8월 6일까지 서천둔치서 열려

코로나 엔데믹 선언 이후 맞이하는 첫 여름, 모두를 시원함에 흠뻑 빠지게 만들어 줄 '2023 영주 시원(ONE) 축제'가 오는 29일부터 8월 6일까지 서천둔치 일원에서 펼쳐진다.

'시원(ONE)축제'는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영주시의 여름 축제 이름으로, 새로운 이름을 달고 야심 차게 준비한 축제인 만큼 어디서도 보지 못했던 새롭고 시원한 공연, 이벤트, 체험 등 다양한 콘텐츠로 영주에서의 특별한 여름을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먼저, 지치고 바쁜 일상에서 피서를 꿈꾸는 이들을 위해 투명 카약, 하늘그네, 플라잉보드, 열기구 등 특색있는 레저 체험이 축제 기간 내내 진행된다.

워터팝존에는 여름을 날려버리는 짜릿한 재미가 쏠쏠한 워터 스피드레이, 워터 스프레이, 워터 캐논 등 물놀이 프로그램과 무더위에 이만한 수분 충전은 없을 정도로 신나게 진행되는 '물총 대난장' 등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해 즐기는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비대 있다. 낮을 시원하게 만들었다면, 밤을 뜨겁게 달굴 프로그램도 이어진다. 축제장 주무대에서는 29일 저녁 9시 '트롯 여제 장윤정'의 개막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30일부터 8월 5일까지 모두가 쉽게 따라 부르는 '데탕 버스킹', 참가자들의 사연을 듣고 음악을 소개하는 '서천이 빛나는 밤에', '시원시원 노래자랑' 등 다양한 음악 공연이 매일 밤 펼쳐져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이어서 축제 마지막 날인 8월 6일에는 전국단위 예선을 통과한 실력파들의 경연인 '서천 강변 가요제'와 폐막공연이 이어져 축제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물풍선을 받아라, 맥주 빨리 먹기, 수박씨 뽀기 등 다채롭게 구성된 영주시 원탁대회와 지역의 대표 마당놀이인 덴둥이마 화전가 공연 등 매일 다른 프로그램이 진행돼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뜨겁고 무더운 여름, 시원한 강변에서 물놀이와 함께 함성을 질러가며 즐기면 된다.

특히 이번 축제는 최고의 맛과 영양을 자랑하는 '영주한우'와 함께하는 축제로 한우구이터와 야시장을 구성해 다양한 먹거리를 선보이고, 한우 이벤트와 할인행사를 진행하는 등 '맛'으로도 한여름의 더위를 날려버린다.

연계 행사도 놓칠 수 없다. 이번 축제는 가족 단위 물놀이객이 많이 찾는 문정 야외물놀이장, 가흥안뜰공원 물놀이장과도 연계해 진행한다.

또, 30일 오후 3시 축제장 인근 영주문화예술회관 까치홀에서는 초대 가수 태진아, 유지나, 김수찬, 김의영의 축하공연이 펼쳐지는 TV조선 '노래하는 대한민국 영주시 편' 녹화도 진행된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시원축제가 여름을 대표하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을 선사하는 것은 물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제45회 경상북도 4-H야영대회, 울진에서 경북농업대전환 성공 결의



울진군은 지난 5일에서 7일까지 3일간 울진국민체육센터 일원에서 경상북도 4-H연합 회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농업의 미래! 4-H가 만드는 농업 대전환!'이라는 주제로 제45회 경상북도 4-H연합회 야영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의 대표적 의식행사인 봉화식에서는 청년 농업인 희망 다짐 퍼포먼스를 통해 디지털 농업의 주역이자 경북농업 대전환을 주도할 22개 시군 청년 농업인들이 희망찬 미래 농업을 만들기 위한

결의를 다졌고, 함께 협동할 수 있는 체육 행사를 통하여 지, 덕, 노, 체의 4-H이념을 고취하고 회원 간의 단합의 장을 마련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4-H연합 회원들을 중심으로 농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갈 청년 농업인을 적극 육성할 것이며, 농업의 미래와 발전을 위하여 4-H연합 회원들이 농업 대전환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장문화기자

### '영·호남 화합'바르게가 앞장섭니다!

바르게살기운동문경시협의회와 남원시협의회는 7월 8일부터 7월 9일 이틀 동안 문경시 일원에서 회원 6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문경시·남원시 자매결연 교류행사'를 개최했다.

두 협의회는 지난 2019년 영호남 화합으로 국민대통합운동에 동참이라는 공동분모로 자매결연을 갖고, 양 도시의 상생과 공동 발전을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남원시에서 개최된 첫 교류행사 이후 올해는 문경에서 2회째 행사로 치러졌다. 첫째 날 문경새재 일원에서 친절운동 캠페인을 시작으로 새재 산행, 오미자테마터널

탐방, 둘레 날 가는 에코월드, 사극 촬영지 등 문경 관광지 탐방을 끝으로 1박2일 간의 여정을 마쳤다.

성용경 바르게살기운동 남원시협의회장은 "바르게살기운동 문경시 회원분들을 비롯한 문경시 관계자분들의 극진한 환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양 도시의 발전을 위해 의기투합해 상생의 길을 함께 열어가자."라고 전했다.

손국선 바르게살기운동 문경시협의회장은 "남원시 1.31명의 전국 최고 합계출산율을 자랑하고는 있지만, 인구의 자연 감소로 줄어지고 있는 영천 인구 증가를 위해 마련한 전일·임신·출산·다자녀 혜택 등 별처럼 쏟아지는 영천시민 혜택을 홍보하고서 회계과 직원들이 나섰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뜻깊은 교류행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문경시와 남원시 바르게살기운동 회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행사가 문경시·남원시 간 화합

과 봉사를 넘어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더욱더 증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사랑하는 영천에 주소두GO, 고향사랑 기부하GO"

영천시는 11일 영천시청 오거리에서 세계 인구의 날을 기념하여 회계과, 세정과, 농협 직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천사랑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회계과 직원들은 대구 군부대 통합 이전에 따른 영천시의 본격적인 유치전을 홍보하고자 릴레이 동영상 제작 배포한 데 이어, 영천 인구증가를 위해 대구 군부대 이전은 필수임을 인식하고 전 직원 ARMY 티셔츠를 입고 인구증가 캠페인

에 동참했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최기문 시장은 "삼북더위도 아랑곳 않고 지역의 현안을 홍보하는 직원들을 보고 넘치는 에너지를 얻었고, 살기 좋은 영천 홍보의 메아리가 널리 퍼져 영천 인구도 증가하고 고향사랑에 동참하는 분들도 많아졌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다."라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한반식기자





# 경북소방학교 '지휘역량강화센터(ICTC)' 준공식

- 남화영 소방청장, "현장 지휘능력 확대, 재난시 국민 안전보장 기여"  
- 이영팔 소방본부장, "소방 지휘관 역량강화로 체계적인 재난대응시스템 확립"

경북소방학교는 지난 10일, 남화영 소방청장, 이영팔 경북소방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휘역량강화센터(ICTC : Incident Command Training Center)' 준공식을 열었다.

지휘역량강화센터(ICTC)는 가상환경(VR) 기반 시뮬레이션으로 다양한 재난현장을 경험할 수 있으며, 실제 경기 힘든 재난현장에 필요 인원과 자원 등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지휘관 역량 강화 전문 훈련방식으로 네덜란드 기술을 도입해 구축했다.

센터는 총 49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국비 20억원, 도비 29.5억원) 지난해 10월 착공해 올해 5월 완공됐다.

연면적 1,962㎡, 지상 2층 규모로 지휘훈련실, 작전회의실, 원격강의실, 긴급구조통제단 훈련실, 상황관리실, 전략회의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고층 건물, 지하 화재 등 재난 양상의 복잡·대형화 경향은 지휘관에게 더 높은 지휘역량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예측 불가능한 재난 발생으로 그 어느 때보다 현장 지휘관의 기술과 역량이 중요시되고 있다.  
경북도는 이번 지휘역량강화센터



(ICTC) 구축을 통해 실제 재난과 유사한 환경 구현으로 앞으로 실전과 같은 반복 훈련이 가능하게 됐다.

한편, 경북소방학교는 1994년 9월 개교 이래 소방공무원의 전문교육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훈련기관으로서 지난 30

년간 총 4만여 명의 소방공무원을 교육해

왔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경북소방학교 지휘역량강화센터 구축을 통해 대구·경북지역 소방 지휘관의 현장 지휘역량 향상과 재난 발생 시 국민 안전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영팔 경북소방본부장은 "재난에 강한 소방, 국민이 신뢰하는 소방 지휘관을 양성해 체계적인 재난대응시스템을 확립하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소통하고 공감하는 직장으로' 대구시, 간부공무원 청렴교육 실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을 비롯한 4급 이상 간부공무원 157명 전원 참석



대구광역시는 11일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을 비롯한 시 소속 4급 이상 간부공무원 15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실시한 첫 집합 대면교육으로, 시 소속 간부공무원 전원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고 공감하는 직장'을 만들기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날은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에 출연하는 등 청렴 일타강사로 활약 중인 신민섭 청렴전문강사를 초빙해 간부공무원이 업무지시 중 자신도 모르는 사이 발생할 수 있는 갑질상황이나 비인격적 대응 등 행동강령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아울러, 대구광역시는 이번 간부공무원 청렴교육을 시작으로 8월부터는 5급 팀장급, 신규자·승진자, 건설·공사유역 등 부패취약분야 담당자별로 교육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직장 내 청렴문화가 뿌리내리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올해는 반드시 청렴도 최상위 등급을 달성해 대구의 자존심을 세워야 한다"면서, "간부공무원들이 부하 직원보다 먼저 소통하고, 청렴하게 처신하고, 몸가짐을 바르게 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 경주시, APEC 유치활동으로 지속가능한 선진관광문화 정착

## 외식업지부와 2025 APEC 유치 캠페인 업무협약 체결

경주시가 오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유치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APEC 유치활동을 선진 시민의식과 관광문화 정착의 전환점으로 삼고자 노력하고 있다.

경주시는 한국외식업중앙회 경주시지부와 '2025 APEC 정상회의의 경주 유치를 위한 선진시민의식 캠페인 및 홍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주 화랑마을 기파랑관에서 지난 10일 열린 이번 업무협약은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 도시로서 경쟁력을 높이고 유치 분위기를 확산 및 성공적 유치를 위한 대내외 의지를 나타내고자 마련됐다.

경주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경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친절하고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약 주요내용으로는 △유치 캠페인 및 공동 홍보 협력체계 구축 △친철·청결·신용·안전 등 관광선진화 4대 실천운동 전개 △국내외 관광객 대상 유치 분위기 확산 △고객 중심 서비스 문화 정착 및 쾌적한

영업환경 조성 등으로 APEC 유치도시 결정 시까지 유치 활동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앞서 시는 친절, 청결 등 캠페인 문구가 담긴 일회용 위생 앞치마 10만매를 지부에 전달했고, 외식업 지부는

손님맞이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기로 한 바 있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관광선진화 실천 및 손님맞이 캠페인과 함께 칭찬하기, 주인의식 갖기, 공익우선 및 배려하기 등 시민의식 함양 4대 과제를 추진하고, 생활환경, 교통, 행사질서 등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도 전개할 예정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경주시지부 최기식 지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의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2025 APEC 정상회의의 경주 유치 활동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무엇보다 시민개개인은 물론 우리 외식업계를 포함해 숙박, 운송, 관광 등 다양한 서비스 업종에서 먼저 스스로 실천하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가 세계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의식 또한 세계적이어야 한다"며, "이는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경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고 강조했다.

윤태용/기자

# 안동시-제50보병사단, 상생발전 MOU 체결

안동시 송현동 군부대 일부 부지가 시민들의 여가와 휴식공간으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안동시와 육군 제50보병사단은 11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연병장 등 주거지역과 인접한 일부 공간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송현동 50사단 일격여단(123여단) 연병장 일대에 시민과 군 장병을 위한 체육공원 조성 ▶사단 장병 및 가족들의 안동 주요관광지 할인 및 문화탐방 프로그램 운영 ▶사단장병 차선놀이 경연대회 개최 및 지역축제 참여 등 상생발전을 위한 노력을 담았다.

이날 협약식에는 문병삼 50사단장과 권기창 안동시장, 우창하·김새롬 지역구 시의원, 그리고 안동시와 사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협약식을 마친 후 송현동 일격여단으로 이동해 현장시찰을 하고 부대 식당에서 병영음식을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오늘 협약으로 송현동 일격여단 일부 부지를 부대 측의 배려로 시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게 되어 기

쁘게 생각한다"라며, "협약에 따라 민·군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공원 등을 신속하게 조성해 개방을 앞당겨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송현동 일격여단 부지는 1950년대 송현동 일대에 36사단 창설과 함께 군부대가 주둔하기 시작했으며, 70사단을 거쳐 현재 50사단 일격여단까지 70여년간 군용지로 이용해 왔다.

시는 송현동 일격여단 일부 부지의 시민대상 개방을 위해 민선8기 공약사항에 이를 반영하고 총력 추진해 왔다. 특히, 권기창 시장이 지난해 10월 문병삼 육군 제50보병사단장을 만나 송현동 소재 군 부지 활용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열어가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윤근수/기자



# 청송군, 건강증진 우수기관 입증!

2023년 지방자치단체 합동성과대회서 '2관왕' 차지



청송군은 보건복지부 주관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합동성과대회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건강증진사업 전략 부문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7월 7일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 개최된 이번 성과대회에서 청송군은 보건·의료분야 중장기 계획인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부문에서 고령층에 대한 일차의료

서비스강화, 지역별 건강행태에 따른 맞춤형 건강프로그램 운영, 수준 높은 의료 환경 조성 등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 기관으로 뽑혔다.

또한 건강증진사업 전략 부문에서는 보건사업 수혜가 어려운 산남지역 주민을 위해 건강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걸음아 날 살려라" 운동, 온라인 에어로빅 등 코로나로 지친 지역주민들에게 활력이 넘

치는 운동프로그램으로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결과 이번 성과대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게 됐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농촌지역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반영한 활기차고 내실 있는 다양한 건강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지역 주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영양군, 민선 8기 1주년 언론관계자 간담회 개최!!

영양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7월 1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언론관계자 간담회에서 지난 민선 8기 1년의 군정 주요성과와 향후 군정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오 군수는 민선 8기 1년은 군민들에게 더 가까이, 더 낮은 자세로, 더 친근하게 다가가려 노력했고, 영양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준비해 왔던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히면서 간담회에 참석한 언론관계자들에게 "새로운 희망 영양을 만들어 가는 데 큰 힘을 보내달라"는 당부의 말로 간담회를 시작했다.

민선 8기 1년 동안 군정 추진에 있어 가장 먼저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양수발전소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음을 밝혔으며, ▲홍고추 최고가격 보장제 ▲전국 최대규모 계절근로자 도입 ▲자작나무숲 명품화사업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 ▲전 군민 건강검진비 지원 등의 주요 성과를 거뒀다고 발표했다.

이어서 군민들이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더 나은 영양을 만들 수 있도록 ▲공공기관 유치 ▲농업 경쟁력 높



이기 ▲교통 인프라 확충 ▲생태관광의 메카 도약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미리 대비하는 의료복지 실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의 7가지 원칙을 내세워 군정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특히 소멸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공공기관 유치에 힘을 쏟을 것을 강조하면서 교정시설, 자작나무 숲체원, 농산물품질관리원 영양사무소, 국유림관리사무소를 유치에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그 중에서도 군민 모두가 사활을 걸고 있는 양수발전소 유치는 영양군의 지속발

전 가능한 영양군의 초석이 될 것이며, 영양의 미래 청사진을 새롭게 그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민선 8기 1주년의 행복한 변화들은 모든 군민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이었으며, 앞으로 3년의 시간 동안 영양의 미래 100년의 초석을 다진다는 마음으로 군정 추진에 임하겠다"며 아울러 "타 지역과는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특별한 영양'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언론관계자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울릉군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현황 점검 회의 개최

울릉군수 및 부군수 주재 10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 점검



울릉군은 지난 11일 10억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현황 점검 회의를 실시했다. 점검회의는 투자사업의 부진 사유를 해소하고, 집행률을 높여 이월사업을 줄이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7월부터 첫째, 넷째(월2회)주마다 정기 회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보조·자체 투자사업 중 시설비 예산 10억이 넘는 총 40건의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담당 부서장 및 팀장은 이월 사업을 먼저 추진하여 당해연도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를 인지하고 이런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 개최된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울릉군은 도시지역 특수성과 부지확보가 어려워 사업 부서에서 업무 추진에 애로 사항이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며, 울릉군의 재정 건전성 및 투명성을 위해 부진 사유를 해소하고 사전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는 등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강재/기자

## 경남도지사,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심의앞둔 과방위에 초당적 협력요청

### 전세계가 경쟁하며 우주산업 열어갈 우주항공청 설치, 늦춰서는 안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11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심의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우주항공청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박완수 경남도지사, 박동식 사천시장, 서희영 사천상공회의소 회장이 함께 국회를 찾았다.

이날 박 도지사는 박광문 민주당 원내대표, 장제원 과방위 위원장, 양당 간사인 조승래·박성중 의원과 이인영 과방위 위

원, 김두관·민홍철 의원을 연이어 방문해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통과를 위한 초당적 협조를 요청하고 건의문을 전달했다.

박 도지사는 "우주산업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 때문에 전 세계가 경쟁하는 상황에서 우주개발 역량은 국가안보와도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잠시도 늦출 수 없다"며 "대한민국 우주경제를 이끌어갈 우주항공청이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국회 과방위 전 위원들의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박광문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주항공청 설치에 대한 이견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장제원 과방위 위원장은 "조속한 시

일 내에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해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한편, 경남도는 정부의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에 속도를 내기 위해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또한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임시청사와 본 청사 건립 후보지를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에 제출했으며, 정주여건 조성을 비롯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등 사천의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재현/기자

## (사)부산수산업정책포럼, 후쿠시마 원전 방류수 대응 대시민 토론회 개최

### 유관기관, 시민단체, 관련업계, 학계 등에서 100여 명 참석한 가운데 ▲ 주제발표 ▲ 전문가 종합토론 ▲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

### 구미시, 중장년·청년 대상 일상 돌봄서비스 시작한다

#### 아이부터 어른까지, 전세대 맞춤형 서비스 제공할 기회 만들어

구미시는 하반기부터 질병·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만40세~64세)과 가족돌봄청년(만13세~34세)을 대상으로 일상돌봄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는 기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으로 10개 사업을 운영 중이다. 지금까지는 아동·장애인·노인 중심으로 이뤄져, 시를 이끌어가는 청년·중장년 세대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번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시행으로 서비스 사각지대인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 지원함으로써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 돌봄체계를 구축할 셈이다.

구미의 '일상돌봄서비스'는 가족과 친지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1인 중장년(만40세~만64세)세대와 아픈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만13세~만39세)을 대상으로 ①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재가 돌봄·가사서비스)와 ② 구미시에서 자체적으로 기획·제공하는 특화 서비스(심리지원·교류증진)의 두 가지로 구성된다.

①재가 돌봄·가사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에서 ▲돌봄, ▲가사지원을 탄력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용자 상황에 따라 최대 월 72시간에서 12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대 72시간의 경우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있어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②특화 서비스는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심리 지원, 교류 증진 등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로 구성된다. 사회서비스 이용에 있어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고도화 방향에 따라, 지역에서 제공하는 특화 서비스 중 최대 2개의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바우처 사업과는 달리, 대상자의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사업이 필요한 대상자라면 신청할 수 있고, 소득기준에 본인부담금이 차등 부과될 예정으로 서비스 연계 장벽이 한층 낮아진 셈이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시는 아이부터 청년·중장년·어르신 전 세대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시는 7월 중 '일상돌봄서비스'제공 기관을 선정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대상자를 추천받아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 또한 하반기 대상자를 모집해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일상돌봄서비스는 최근 1인가구 급증과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마련한 복지서비스로, 중장년층과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행복한 구미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김동현/기자

**2023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선정 일상돌봄 사회서비스**

사업 개요	서비스내용
<p>대상자: 구미시에 거주하는 1인 중장년 / 가족돌봄청년</p> <p>사업기간: 23. 7. ~ 12. (6개월간)</p>	<p>1. 기본서비스: 재가 돌봄 서비스</p> <p>2. 구미형 특화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맞춤형심리 서비스</li> <li>- 교류증진 서비스</li> </ul> <p>(특화서비스는 지자체별 상이) (상세내용은 추후 안내)</p>

구미시 복지정책과

(사)부산수산업정책포럼(대표이사장 류청로)은 오늘(11일) 오후 2시 백스코에서 후쿠시마 원전 방류수 대응을 위한 '전문가 초청 대시민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후쿠시마 원전 방류수로 국내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 따라, '우리 바다, 우리 식탁 안전하게!'를 주제로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수산 분야에서의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유관기관, 시민단체, 관련업계, 학계 등에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 주제발표 ▲ 전문가 종합토론 ▲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된다.

주제발표에서는 ▲ 이현철 한국원자력

학회 이사(부산대학교 교수)가 '원전방류수에 대한 과학적 접근'에 대해 ▲ 최재석 경상국립대학교 교수가 '오염수 방류, 수산분야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전문가 종합토론에서는 수산분야 전문가 8명이 앞선 주제발표 내용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 수렴의 시간을 가진다.

토론에 참여하는 수산분야 전문가는 ▲ 좌장을 맡을 이정석 (사)한국수산과학회 회장을 비롯해 ▲ 김경옥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 정창식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 서만석 한국수산무역협회 이사 ▲ 마창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 본부장 ▲ 이홍제 동남권원자력학원 과장 ▲ 최윤찬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강수경 국립수산과학원 연구해자원과장 등이다.

(사)부산수산업정책포럼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 방류수 대응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찾는 것뿐 아니라, 시민들에게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해 국내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이로 인해 예상되는 어업인들의 생계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다.

류청로 (사)부산수산업정책포럼 대표이사장은 "이번 토론회가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미래와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함께 고민해 보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며, "심도 있는 논의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후쿠시마 원전 방류수 대응을 위한 수산분야 정책과제를 도출하겠다"라고 전했다.

송중진/기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전문가 초청 대 시민 토론회**

2023. 07. 11(화) 14:00-16:20  
백스코 (부산광역시 연제구) 214-215

주최: (사)부산수산업정책포럼

주최위원장: 류청로 (사)부산수산업정책포럼 대표이사장

주최위원: 김경옥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정창식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서만석 (한국수산무역협회 이사), 마창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 본부장), 이홍제 (동남권원자력학원 과장), 최윤찬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수경 (국립수산과학원 연구해자원과장)

주최위원장: 류청로 (사)부산수산업정책포럼 대표이사장

주최위원: 김경옥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정창식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서만석 (한국수산무역협회 이사), 마창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 본부장), 이홍제 (동남권원자력학원 과장), 최윤찬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수경 (국립수산과학원 연구해자원과장)

### 예천군, 인문학 숲길 산책 강연

#### 7월 15일 김봉렬 교수초빙 '건축의 시간, 영원한 현재' 강연

예천군은 오는 15일 오후 2시부터 경북여성정책개발원 1층 다목적실에서 '건축의 시간, 영원한 현재'라는 주제로 김봉렬 교수를 초빙해 인문학 숲길 산책 강연을 개최한다.

김봉렬 교수는 제7, 8대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을 역임하고 한국의 역사적 건축물 관련 도서 발간, 강연, 방송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건축사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강연은 우리나라 원시시대 최초의 건축인 고인돌부터 현대 건축물까지 과거 2,500년이라는 시간을 축적해온 건축물이 전해주는 시대별 문화적 특장과 정신을 김봉렬 교수만의 독창적 스타일로 풀어낸 명강을 진행한다.

하미숙 문화관광과장은 "한국고 건축계의 석학 김봉렬 교수의 수준 높은 강연을 준비한 만큼 건축 인문학과 답사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이후 강연도 주민들을 위한 유익한 강연을 제공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예천군이 주최하고 예천남독연구회(회장 권오휘)가 주관하는 '인문학 숲길 산책'은 지난 5월 전유성 코미디언의 강연을 시작으로 △7월 15일 김봉렬 전 한국예술종합대학 총장 '건축의 시간, 영원한 현재' △7월 18일 안도현 단국대 교수 '나는 이렇게 시에 다가가다' △8월 5일 김병호 경북유지 칸타빌레 단장 '시와 음악이 있는 오후' △10월 7일 나태주 시인 '시를 통해 헤아리는 삶의 지혜'를 주제로 하는 총 5회의 명사 초청 강연이 예정돼 있다.

윤근수/기자

**2023 인문학 숲길산책**

인문학거머지도를 찾아

전유성 (코미디언, 코미디유희극장 대표)  
**안하연 거머지기**  
5.20.(토) 14:00-16:00  
경북여성정책개발원 동행관 1층 다목적실

김봉렬 (전.한국예술종합대학 총장)  
**건축의 시간-영원한 현재**  
7.15.(화) 14:00-16:00  
경북여성정책개발원 동행관 1층 다목적실

안도현 (단국대 교수)  
**나는 이렇게 시에 다가가다**  
7.18.(목) 14:30-16:20  
경북대학교 교정

김병호 (경북유지 칸타빌레 단장)  
**시와 음악이 있는 오후**  
8.5.(토) 14:00-16:00  
경북여성정책개발원 동행관 1층 다목적실

나태주 (시인, 문화관광과 관장)  
**시를 통해 헤아리는 삶의 지혜**  
10.7.(토) 14:00-16:00  
경북여성정책개발원 동행관 1층 다목적실

## 부산진구,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카드뉴스 제작 홍보

부산 부산진구는 지난달 29일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4명을 선발했다.

적극행정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부산진구는 조직 내 적극행정 마인드 확산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반기별로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있다.

최종 심사결과 최우수에 건설과 윤효정 주무관, 우수에 복지사업과 김소연 주무관, 장려에 건축관리과 강혜옥 계장, 백인우 주무관이 선발됐다.

건설과 윤효정 주무관은 코로나19 이후 방문객의 증가가 예상되는 부산진구 서면 젊음의 거리 하수시설 CCTV점검을 통해



일번지 부산진구를 만드는데 노력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건축관리과 강혜옥 계장, 백인우 주무관은 개인 소유권 문제로 해결하기 어려운 방치된 빈집 철거와 관련하여 인근 주민들의 인명·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긴급조치를 시행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쳐 팀 수상을 했다.

한편, 선발한 우수사례는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구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해 대내외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영록 구정장은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가 확산되도록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겠다"고 밝혔다.

송중진/기자

선제적으로 하수시설을 점검하고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했다.

복지사업과 김소연 주무관은 급속히 증가하는 1인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기반을 구축하여 1인가구가 살고 싶은 행복



# 전남도, 장흥에 '청년 창업행복노년' 스마트타운 조성

### 디지털 기술 활용 생활여건 개선으로 지역격차 해소 기대

전남도는 행정안전부의 '2023 디지털타운 조성사업' 공모에 장흥 '건강 창업행복노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생활여건 개선으로 지역격차 해소가 기대된다.

인공지능, 스마트센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어르신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스마트타운을 조성하게 된다. 또 복지·안전 사각지대 해소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총 55개 지자체가 신청해 장흥을 포함한 9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장흥의 생물의약산업 기반 '건강 창업행

복노년' 스마트타운 조성사업은 특별교부세 80%와 군비 20% 등 총사업비 11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창업으로 활기찬 청년과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만들기'를 목표로 장흥 생물의약산업 기반 6차 산업 창업 컨설팅 센터를 구축해 창업 상담을 하고, 멘탈헬스케어 프로그램 개발과 천연오일 발향 키오스크를 제작 보급해 노인 정신건강 관리를 추진한다.

지난해 전남에선 장성의 '귀농·귀촌 지원 디지털타운 조성사업'이 선정돼 특별교부세 5억 원과 군비 5억 원 등 총사업비 1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했다.

장흥군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디지털타운 조성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생활 여건 개선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전남 도민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플랫폼정부로의 전환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 남원시, 청소년의 자립역량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남원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더벤티 남원세무서점



남원시 (사)기독교청소년협회(CYA)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남원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더벤티 남원세무서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남원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자립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여성가족부 사업의 일환으로 총 5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 진로상담을 시작으로 ▲2단계 자립동기부여 프로그램에서 진로캠프 및 직업훈련 기관들을 방문하여 자립 동기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3단계는 학교 밖 청소년이 취득하고자 하는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기초기술 훈련 강의와 실습이 이루어진다. ▲4단계는 3단계에서 취득한 자격증을 가지고 실제 사업장에서 실무 및 직업환경체험을 하며, ▲5단계 취업연계지원으로 프로그램이 마무리된다.

이에 4단계에 해당하는 실무 및 직업환경체험을 할 수 있도록 더벤티 남원세무서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청소년의 자립증

진 및 직업체험을 위한 교육 ▲인적·물적 자원 교류 및 지원 협력 ▲상호발전과 공동 목적을 이루는 사업추진 등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 진입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 복지 향상을 위해 공동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남원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정일신 센터장은 "남원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전문성과 다양성을 두루 갖춘 양질의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준 더벤티에 감사하며, 양 기관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 지원 등을 지원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며, 궁금한 사항은 남원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남출/기자

# 복날엔 바다의 산삼 '완도 전복' 드시고 무더위 극복하세요!

완도군이슈, 전국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에서 전복 할인 판매



전국 전복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전남 완도군에서는 복날을 맞아 다양한 전복 판촉 행사를 실시한다.

7월 7일부터 14일까지, 7월 18일부터 24일까지, 8월 8일부터 15일까지 탐마트 전 지점에서 완도 전복 특판 행사가 열리고, 7월 13일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전복 판촉 행사 개장식과 함께 '삼복 무더위 완도 전복으로 극복하자!'며 전복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7월 20일부터 4일간은 세종 로컬푸드 직매장 도담점에서 (사)한국전북육협회와 완도소안수협이 운영하는 전복 할인 직거래 장터도 열린다.

말복 즈음에는 8월 10일부터 16일까지 이마트 서울 본점(성수점) 외 130개소에서 전복을 할인 판매한다.

온라인은 군 대표 쇼핑몰 '완도군이슈'

에서 말복인 다음달 11일까지 전복 구입 시 최대 25%를 할인한다.

군 관계자는 "완도 전복 할인 행사 기간 소비자들은 원기 회복과 면역력 강화에 좋은 전복을 저렴한 가격에 드시고, 어가 소득 증대로 이어져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2014년부터 매년 삼복 즈음 소비자들에게 전복 먹기를 권장하며 '복날엔 전복, 전복 데이'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완도 전복은 청정 바다에서 나는 다시마와 미역 등을 먹고 자라 각종 비타민과 철분, 칼슘, 칼륨, 단백질 등이 풍부해 '바다의 산삼'이라 불리며, 영양은 물론 육질이 연하고 부드러워 남녀노소를 위한 최고의 보양식으로 꼽힌다.

양영욱/기자

# 사계절 축제가 이어지는 해남, 땅끝마을 여름축제 팡파르

### 28~30일 송호해수욕장서 해변축제 '사계절 축제' 대표 관광상품으로 육성

### 2023세계유산축전-선암사-순천갯벌 '영상·사진' 공모

순천 세계유산축전위원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2개의 공모전을 개최한다.

'2023 세계유산축전 홍보 영상 공모전(선암사-순천갯벌 배틀트립)'과 '2023 세계유산 여행사진 공모전'이다.

영상 제작이나 사진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작품은 다음달 27일까지 접수한다.

'2023 세계유산축전 홍보 영상 공모전(선암사-순천갯벌 배틀트립)'은 작품을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리고 신청서 폼을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다음 달 31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명(200만원), 우수상 2명(각 100만원), 장려상 4명(30만원), 입선 10명(기프티콘 10,000원)에게 상금이 수여된다.

'2023 세계유산축전 여행 사진 공모전'은 선암사와 순천갯벌 사진을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올린 후 신청서 폼을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매주 세계상 10명(기프티콘 3만원), 추천상 20명(1만원)에게 상금이 수여된다.

공모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순천세계유산축전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순천세계유산축전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위원회는 수상작을 올해 8월 한 달간 개최되는 '2023 세계유산축전-선암사, 순천갯벌' 공식 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재근 순천 세계유산축전위원장은 "이번 공모전이 순천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선암사와 순천갯벌의 다양한 가치를 발견하고, 기발한 사진과 영상들이 제작될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승준/기자

해남군이 사계절 축제를 해남 대표 관광상품으로 육성한다.

해남군은 오는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땅끝마을 송호해수욕장에서 송호해변 여름축제를 개최한다.

울창한 해수와 호수처럼 잔잔한 바다가 아름다운 송호해수욕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여름 축제에서는 인기 가수들이 출연하는 축하쇼를 비롯해 불꽃쇼, 해변 가요제 등이 열린다. 또한 너른 백사장에서는 워터밤(WATERBOMB), 버블쇼, 서커스 공연 등도 이어지며, 놀이터와 주전부리 남만점 등이 운영되어 온 가족이 함께하는 여름축제의 진수를 선보일 예정이다.

해남군은 민선8기 산발적으로 이어져온 축제를 계절별로 정착시켜오면서 축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따라 올해 송호해변축제를 대표 여름축제로 확대해 여름철 관광활성화의 기반으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4~5월 개최된 달마고도 힐링축제와 어린이 공룡대축제는 대표 봄축제로 성공리에 개최되어 축제 브랜드를 전국에 알렸다.

달마고도 힐링축제는 전국 각기 여행객들의 성지로서 달마고도의 위상을 다시한번 확인했고, 올해 처음 개최된 해남 어린이 공룡대축제는 곳은 날씨에도 2만



5,000여명이 찾으며 차별화된 어린이 축제로서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송호해변 여름축제가 이어 가을의 초입인 9월부터는 매달 축제가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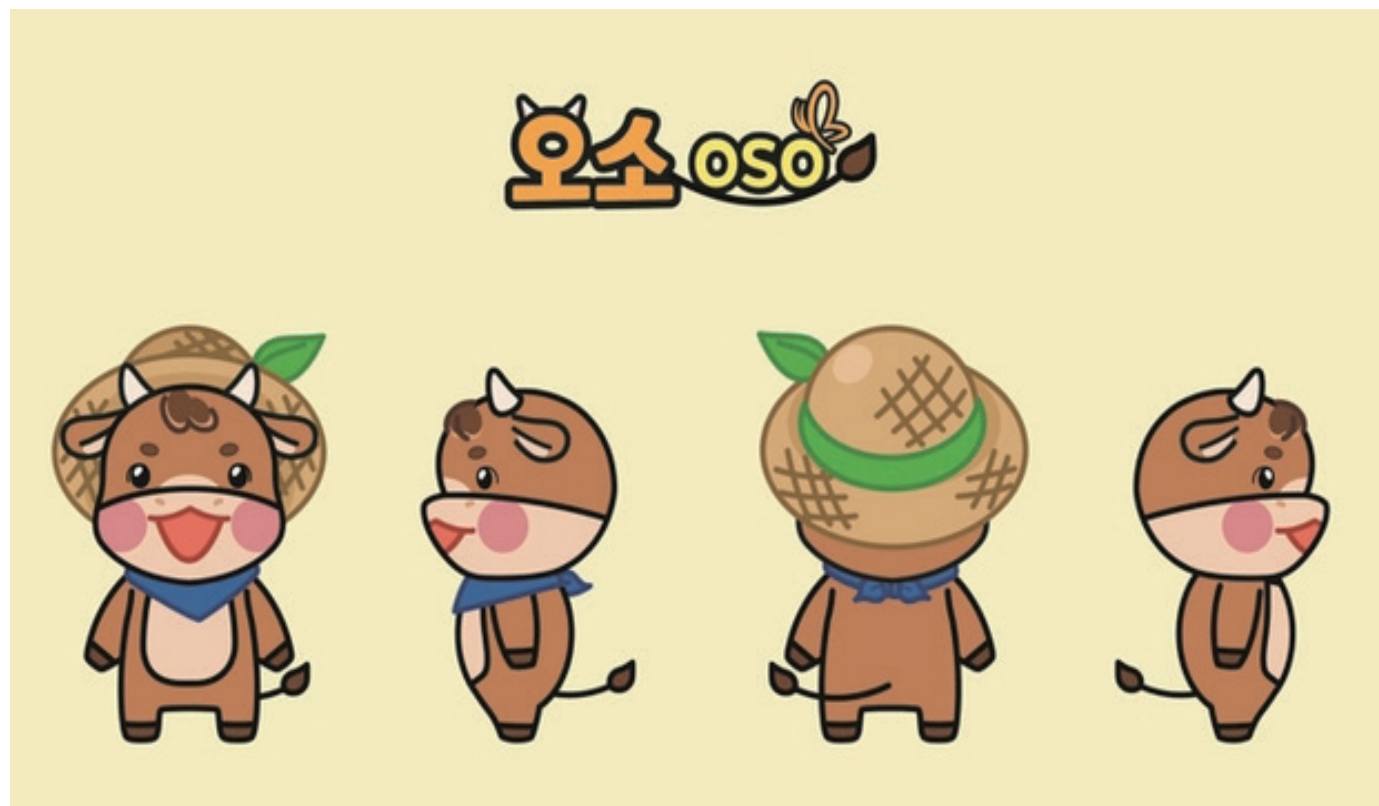
9월 8일부터 10일까지 우수영 관광지에서 명랑대접축제가 열리며 10월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대표 캠핑성지 오시아노에서 캠핑 박람회 및 뮤직페스타가 개최된다.

특히 11월에는 3일부터 5일까지 해남의 풍부한 농수산물로 만든 특색있는 맛의 축제이자 전라남도 대표 먹거리 축제인 해남 미남축제가 열릴 예정이다.

최갑문/기자

# 함평군, 청년 귀농귀촌 홍보 캐릭터 '오소' 개발

### 참여형 프로그램 및 군 홍보 등 다양한 활용



전남 함평군이 귀농귀촌 캐릭터 '오소(OSO)'를 개발, 청년 귀농귀촌 홍보 활성화에 나선다.

이번에 개발된 캐릭터인 '오소'는 '함평 천지한우'의 상징인 '소'를 소재로 개발했으며, '함평으로 오라'는 의미에서 '오소'라고 이름 붙여졌다. 아울러, 초원의 농부가 연상되도록 밀짚모자를 쓰고 함평의 친근

감과 우호성을 나타내고 있다.

군은 귀농귀촌 캐릭터 개발을 위해 1차, 응용형 20종을 개발 완료했다. 2차의 내부 설문과 전문가 심사를 통해 지난 2월 3종의 대상 캐릭터를 발굴했다.

이후, 발굴된 캐릭터를 대상으로 디자인화 작업을 실시했다. 올해 봄 '나비대축제'

기간 동안 캐릭터를 활용한 상담 행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6월 캐릭터 로고와 기본형 1종, 응용형 20종을 개발 완료했다.

군 관계자는 "귀농귀촌 캐릭터를 통해 참여형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함평 방문을 유도하고 정주 의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 나주시,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지정... 규제 완화, 기술 사업화 기반 마련

#### 국토부, 죽산보~나주대교·봉황면·나주호 일원 3곳 지정



전라남도 나주시가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로 꼽히는 '드론'(drone) 기술을 규제 없이 자유롭게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특구 기반을 갖추게 됐다.

나주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한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확대 지정' 공모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은 드론 산업의 실용화, 사업화 촉진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드론법)에 따라 지정한다.

특구로 지정되면 신규 개발 드론의 시험 비행 시 거치는 특별감항증명서 시험비행 허가, 안전성 인증, 비행 승인, 전파 적합성평가 등 각종 규제가 면제 또는 간소화된다.

이를 통해 드론 기체 개발, 실증기간을 5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자유화 구역으로 기존 운영 중인 14개 지자체 29개 구역에 이어 나주시를 포함해 9개 지자체 18개 구역을 추가, 7월부터 총 23개 지자체 47개 구역으로

확대·운영한다.

공모 선정을 통해 지정된 나주지역 드론 특구(총면적)는 '영산강 죽산보~나주대교'(22.3km<sup>2</sup>), '봉황면 일원'(45km<sup>2</sup>), '나주호'(15km<sup>2</sup>) 등 3개 구역이다.

나주시는 영산강으로 유입되는 쓰레기 및 강변 시설물 모니터링, 집중호우, 하천 범람에 따른 재난취약구간 점검 등 드론을 활용한 하천 환경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기 악취 배출원별 측정·분석을 통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등 다양한 드론 서비스 모델을 실증할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미래 성장 잠재력이 큰 드론산업 육성 발판을 마련함과 동시에 지역 드론 기업·사업자에게 기술 발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뜻깊은 성과"라며 "특구 지정을 통해 다양한 기관·기업들과 드론 융복합 사업 모델을 발굴해 사업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가겠다"고 밝혔다.

김영만/기자

### 스포츠 메카 영광군, 대통령배 전국 중고 배구대회 개최

#### 2022년 대안 중고 배구대회 우승한 풍원상업고등학교 출전



올해 많은 전국 규모 대회를 개최하여 스포츠 선진 도시로서의 위상을 이어가고 있는 전남 영광군은 오는 7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스포티움 국민체육센터 등 관내 4개 실내체육관에서 제56회 대통령배 전국 중고 배구대회를 개최한다.

한국중고배구연맹과 전라남도배구협회, 영광군배구협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 58개 팀 1,200여 명의 선수·임원들이 참가한다.

국가대표팀 훈련 호출로 일부 여자중학교·여자고등학교가 불참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최대 규모이다.

대회 방식은 예선 조별리그를 통해 본선 진출 팀을 선발한 후 토너먼트로 최종 우승 팀을 가리게 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정부 명칭 사용 대회 매뉴얼에 따라 국제대회의 격상을 위해

대만의 풍원상업고등학교가 참가하여 대회의 격을 높여주었다.

풍원상업고등학교는 대만의 배구 명문학교로, 2022년 대안 중고 배구대회 우승학교로서 한국중고배구연맹의 정식 초청을 받았다.

또한, 대회 마지막 날인 7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열린 남·여 고등부 결승전은 KBS N SPORTS에서 전국에 생방송으로 중계할 예정이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전국적인 이목이 집중되는 대회를 개최한 만큼 준비를 철저히 하여 영광군의 역량을 우리나라 전 국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다른 시, 군보다 비교우위에 설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라며 이번 배구대회에 대한 남다른 각오를 다졌다.

박원규/기자

## 전남도, 인구 위기를 기회로 전환·전남 미래 준비 다짐

### 제12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13개 기관 인구위기 극복 협약도

전라남도는 11일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인구감소 위기 극복에 대한 도민 관심과 동참을 촉구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 전남의 미래를 준비할 것을 다짐하는 '제12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창환 전남도 정무부지사,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 황성환 전남도교육청 부교육감, 송하철 목포대학교 총장, 송경용 동신대 부총장, 송경선 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 본부장과 업무협약 기관·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또 성혜란 전남여성가족재단 원장과 정양수 대한노인회 전남연합회장, 박성선 전남도 어린이집연합회장, 최두례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김옥환 전남도 귀농귀촌인연합회장, 유관 기관·단체 임직원, 공무원, 도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해 모든 세대가 행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위기를 기회를 준비된 전남의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열린 기념행사는 '목포시립 소년소녀합창단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인구정책 성과와 계획을 담은 영상 상영, 인구문제 극복 유공자 표창, 기념사 및 축사, 저출산 극복 협력 업무협약, 퍼포먼스,



인구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선 이주노동자의 생활 고충과 법률 상담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에 노력한 양현성 광양외국인노동자센터장과 고위험임산부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 환경 개선에 노력한 태철민 전남권역난임·우울증상담센터장 등 9명이 인구문제 극복에 대한 공로로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전남도와 전남도의회 등 13개 기관·단체는 저출산 극복 인식 개선과 임신·출산·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업무협약을 하고 상호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한마음으로, 모든 세대가 행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인구감소 위기 극복, 희망 전남! 행복 전남!'을 외치면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 전남의 미래를 준비할 것을 다짐했다.

박창환 부지사는 "전남 함께출산율이 계속 감소하면서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차별화된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아이·청년·어르신·여성 등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전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인구교육 초청 강연에서 장미영 광주대학교 교수는 '인구감소 시대의 전남미래 준비'

를 주제로 강연에 나서 "도민 공감대를 이끌고 인구문제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 인구의 날'은 1987년 전 세계 인구가 50억 명이 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유엔개발계획(UNDP)이 매년 7월 11일로 제정했다. 한국에선 국민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민간참여 유도를 위해 2011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을 통해 지정됐다. 전남도에서는 2012년부터 매년 '인구의 날 행사'를 개최해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했다.

박종배/기자

### 장흥군, 민주평통 장흥군협의회-부산시 남구협의회 '영호남 통일교류 행사'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장흥군협의회는 부산시 남구협의회를 초청해 '영호남 통일교류' 행사를 개최했다.

민주평통 장흥군협의회와 부산시협의회는 2011년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현재까지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7일과 8일 열린 행사에는 위수미 민주평통 장흥군협의회장, 최성식 민주평통 부산시협의회장, 김성 장흥군수와 오은택 부

산남구청장, 박형대 전남도의원, 왕윤재 장흥군의회 의장, 장흥군협의회·부산시협의회 자문위원 7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영호남 간의 화합과 통일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민주평통 장흥군협의회는 행사에 앞서 통일의 시작을 염원하는 정남진 통일 기원탑과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람을 실시했다.

장흥군청에서 열린 본행사에서는 통일 간담회 개최와 상호 감사패 전달, 기념품 교환식 등을 가졌다.

김성 군수는 "남과 북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동서 간의 화합도 중요하다"며, "민주평통 부산시협의회와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깊은 우정을 나누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재원/기자

### 구례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우수지자체로 선정



전남 구례군이 지난 7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개최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성과대회'에서 시·도 평가 부문 우수

지자체(장려상)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

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4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법정계획이다. 구례군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의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했다.

보건복지부는 중앙평가위원회를 구성해 17개 시도의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대상으로 계획 적절성, 계획 포괄성, 목표 설정 타당성, 계획수립 노력도 등을 평가했다.

중앙평가위원회는 구례군이 지역사회 현황을 토대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구례군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평생 건강을 다 함께 누리는 구례'를 비전을 설정하고 보편적 의료 보장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생애주기를 고려한 생활터별 건강관리, 취약계층 스스로 건강권 인식 제고,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보건으로 안전망 구축 등 4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8개의 추진과제를 실행할 방침이다.

김순호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 형평성 개선을 위해 지역 현황에 맞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충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경호/기자

### 완주군-전주시, 서울 홍대서 BT21과 함께하는 팝업스토어 '완전채' 연다

완주군과 전주시가 손을 잡고 국내·외 MZ세대 여행객 공략을 위해 서울 홍대 앞을 찾았다.

완주군은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IPX(구라인프렌즈)의 글로벌 인기 캐릭터 IP BT21과 손을 잡고 완주군, 전주시 공동 여행홍보관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 홍보관은 '완전채'라는 이름으로 팝업스토어로 진행된다.

운영장소는 서울시 마포구 홍익로6길 23(인생네트 홍대 동교점)이며, 운영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저녁 9시까지 진행된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제5차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기획 추진한 공동 관광홍보마케팅 사업이기도 하다.

행사장에서는 새롭게 출간한 'BT21 트립북 완주-전주' 여행가이드책을 같이 선보일 예정이다.

이 여행가이드는 책은 두 도시의 매력을 국내·외 여행객들에게 소개하고 BT21과의 특별한 만남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무료로 '인생네트 BT21 완주-전주 에디션 프레임'을 촬영할 수 있는 이벤트가 진행된다.

또한, 'BT21 트립북 완주-전주'를 기념하는 특별한 에디션 굿즈상품도 선보이고 판매 할 예정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행사를 통해 완주군, 전주시가 가진 한국의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국내는 물론 전 세계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 경기도 특사경, 전세 보증보험 악용한 불법 중개업자 7명 입건

### 부천시 신축 빌라(19년 준공) 등 광통전세, 기획파산 관련 불법 중개행위자 7명 입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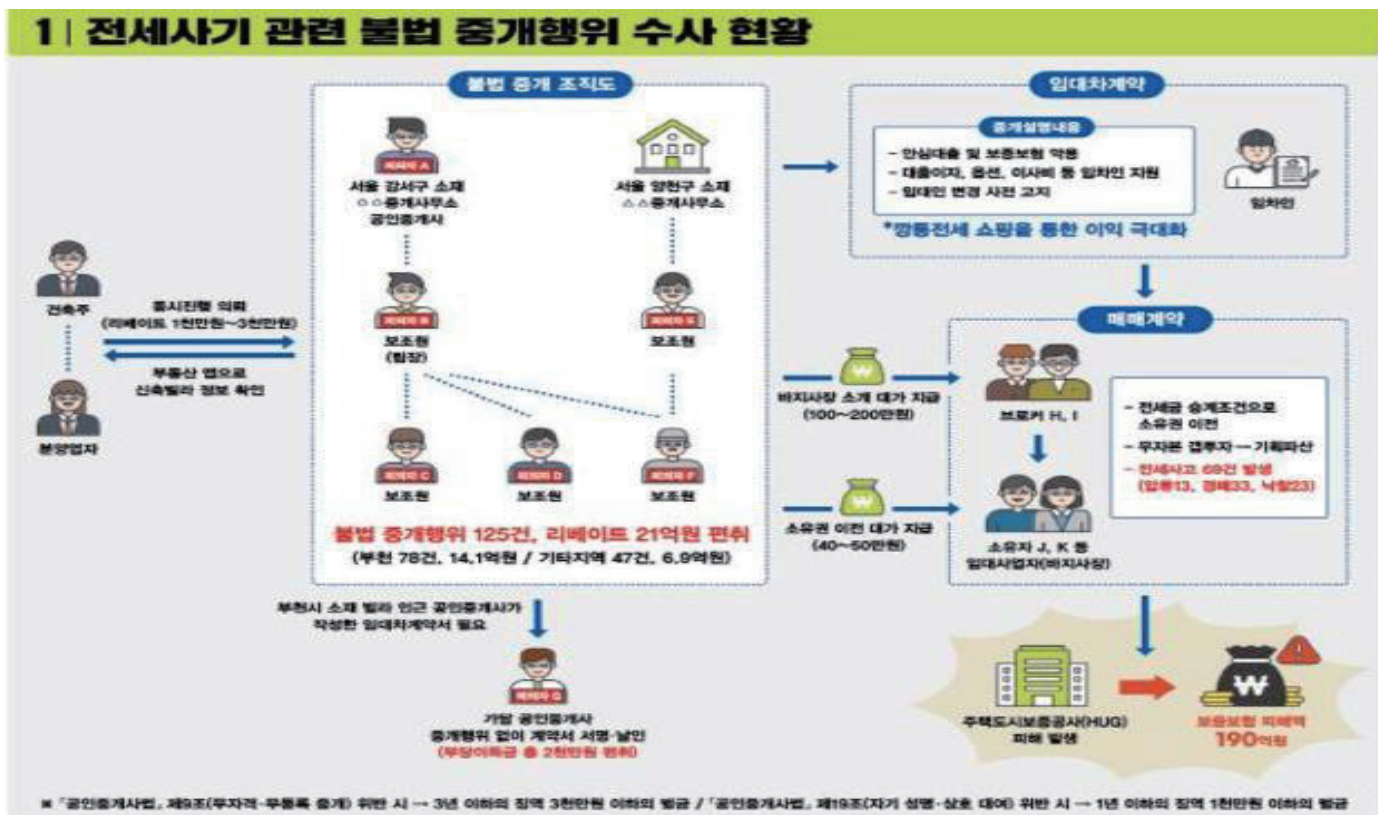
전세와 매매를 '동시 진행'하는 전세 사기 매물로 광통전세 계약을 유도한 부동산 중개업자 7명이 경기도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번 전세 사기는 중개업자와 함께 임차인, 바지 사장(임대사업자) 등이 보증보험 가입 시 전세 금액과 상관없이 전액을 보증해 주는 제도를 악용한 새로운 유형으로, 이들로 인한 보증보험 피해액만 무려 190억 원에 달한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3월부터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의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부천시 신축 빌라 등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관련 불법 중개행위를 조직적으로 공모해 125건의 임대차계약을 불법 중개한 사실을 적발하고 부동산 중개업자 7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A씨 등 6명은 부천시 신축 빌라를 대상으로 분양업자로부터 전세와 매매를 동시에 의뢰받고 전세자금 반환 보증 제도를 미끼로 임차인에게 계약을 중용해 부천 신축 빌라 78건, 14억 1천만 원, 서울 강서구와 인천 서구·부평구 일대 빌라 47건, 6억 9천만 원 등 총 125건에 대해 21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2천만 원을 받고 불법 중개 임대차계약서에 서명·날인해 가담한 공인중개사 1명도 적발됐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피의자들은 부동산 중개업자 A와 신축 빌라 분양업자 B를 통해 물건정보를 확인한 후 분양업자로부터 '전세와 매매'를 동시 진행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의 중개 의뢰를 받았다.

이들의 의뢰받은 신축 빌라를 인터넷 광고를 통해 임차인을 구한 후 임차인들에게 안심 전세대출을 받으면 전세자금 보증보험이 자동으로 가입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없다고 안심시켰다. 또한 임대차계약 시 전세자금 대출이자 및 이사비와 냉장고 등의 옵션을 지원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현 소유자는 건축주이지만 곧 임대사업자(소유자)로 변경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등 임차인의 광통전세 계약을 유도했다.



피의자들은 임차인이 전세자금 안심 대출을 받고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신축 빌라 인근 부동산 중개사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의 서명·날인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자, 부천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 공인중개사 G씨에게 2019년 2월부터 10월까지 월 200만 원씩 1천8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의뢰했고, G씨는 중개행위 없이 임대차계약서에 서명·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차인들도 소망하듯 '광통전세' 대상 매물을 골라 피의자들이 받은 리베이트 14억 1천만 원 중 44%에 해당하는 6억 2천만 원을 받았고, 일부 임차인의 경우 최대 2천400만 원을 받았다. 피의자들이 불법 중개한 부천시 소재 신축 빌라 매매 78건 중 '무자본 갚투자'로 바지 사장 2명이 각각 21건, 20건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불법 중개한 78건은 바지 사장들의 기획파산으로 현재 압류가 13건, 경매 진행 33건, 경매낙찰 23건으로 총 69건의 전세 사고가 발생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압류 및 경매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임차인들은 모두 안심 전세대출을 통해 보증보험에 가입해 직접적 피해를 보지 않았지만, 전세자금 반환 보증 제도를 운영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보증 피해액만 무려 190억 원에 달한다. 현재 경기도는 해당 부천 전세 사기 관련 불법 중개행위자 7명에 대해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불법 중개한 9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대해서도 위법 사항이 확인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현재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 동해시, 휴가철 불법 숙박 영업 '꼼짝마'

### 위생·관광·해양·농업 4개 부서 합동단속...이달 중 형사고발과 행정처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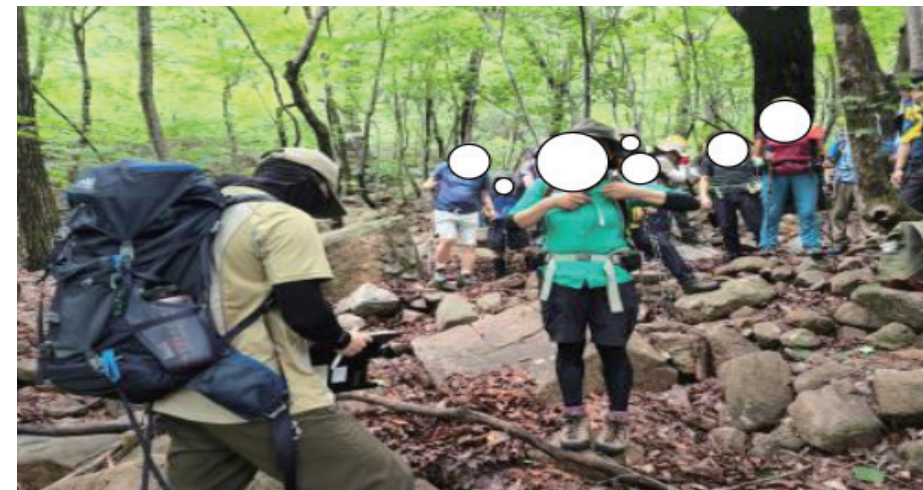
동해시가 '불법 공유숙박'제로화를 추진중인 가운데, 최근 여름 휴가철 불법 숙박 영업 집중단속 결과 1곳을 적발해 이달 중 형사고발과 함께 행정처분 등의 강력한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5월 8일부터 이달 7일까지 두 달간 숙박 관련 부서인 위생·관광·해양·농업 등 4개 부서가 합동으로 공유숙박 플랫폼 모니터링 업소와 지난해 고발업소 및 민원 제보 업소 등을 대상으로 고강도의 단속 활동을 펼쳤다. 단속 결과 공유숙박 플랫폼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 단속 예고에도 불구하고, 영업행위를 지속하던 1곳의 업소를 지난 7일 현장 적발했다.

적발된 A씨는 바다 전망 아파트 1채를 외국인도시민박업으로 등록 후 공유숙박 플랫폼으로 1박에 50만원에 판매하면서, 실제 예약한 손님에게는 등록되지 않은 다른 호수를 안내해주는 불법 숙박 영업 중 적발됐다. 미신고 불법 숙박 영업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 대상임과 동시에, 주거용 건축물을 숙박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건축법' 위반행위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만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16곳의 불법 숙박업소를 적발했는데, 문제는 이러한 플랫폼을 규제할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라며, "비유하자면 마약을 거래하는 플랫폼은 놔두고 마약을 거래한 사람만 단속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난 19대 국회 때 온라인 숙박 플랫폼에서 영업자로 등록 시 숙박 사업자 등록증을 의무적으로 게시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19대 국회 임기가 종료하며 자동 폐기됐다. 법 개정이 불발된 상태에서 플랫폼을 통한 불법 숙박이 끊이지 않자, 동해시는 자구책으로 플랫폼의 메시지 전송기능을 이용한 '단속 예고제'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내 불법 숙박 영업소 총 142곳을 찾아내, 이번 적발업소 1곳을 제외한 141곳(99.3%)은 영업 신고나 중단을 유도하는 성과를 올렸다. 아울러, '공유숙박 플랫폼 운영자의 신고(등록) 숙박 영업소 여부 확인 절차의 무효화' 등의 내용이 담긴 '불법 숙박 영업 행위 방지 특별법' 정부 입법을 지난 2월 행정안전부에 건의하여, 현재 정부 부처에서 검토 중이다. 최기승 예방관리과장은 "탈세를 비롯해 위생과 안전의 사각지대인 불법 숙박 영업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합동단속 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하고, 매달 특별단속의 날을 운영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승원/기자

# 환경부, 국립공원 안전사고 예방, 셋길 출입 등 집중 단속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 예방 및 환경 보전을 위해 설악산국립공원을 시작으로 7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 성수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 대상은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셋길 출입, △ 불법주차, △ 불법취사 및 야영 △ 흡연 및 음주행위 등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전국 국립공원의 주요 탐방로 입구에서 문자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탐방객에 집중단속 정보를 안내하고 총 2,811명의 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립공원공단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서도 자세한 내용을 알리고, 이를 통해 탐방객의 안

전사고 및 불법행위를 예방하여 쾌적한 탐방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3년(2020~2022년)간 여름성수기 기간(7~8월)에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익사, 심장마비, 골절 등)는 총 56건이며 2020년 19건(사망 2건, 부상 16건), 2021년 18건(사망 2건, 부상 16건), 2022년 19건(사망 4건, 부상 15건)으로 집계됐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 조성을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지아/기자

# 강원도, 여름 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강원특별자치도는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도를 방문한 여행객 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산림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8월말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기간에는 선(先)계도 후(後)단속 원칙에 따라 현수막 거점, 전단지 배부 등 여름철 도 방문객을 대상으로 선(先)계도를 실시 한 후 시군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총 250여명의 단속인력을 투입하여 산림계곡 및 해수욕장 주변 산림 49개소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물놀이 시설 등 불법 시설물 조성, 설치 △계곡 무단 점유불법 행위 △허가된 장소 외 취사 △쓰레기 투기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불법행위로 적발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고, 산림내 취사·흡연 등에 대한선 적발 즉시 과태료 부과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창규 산림환경국장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서 우리 도를 찾는 방문객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 된다"며, "모두가 쾌적한 공간에서 산림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쓰레기 되가져가기 등 기본적인 산림 이용 수칙을 지켜 줄 것"을 부탁 했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방문객 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 드린다" 라고 말했다

이승원/기자



# 대전시 특사경, 부정·불량 식품 유통·판매업소 6곳 적발

### 영업 신고 없이 식품을 소분·유통하고 소비기한을 거짓으로 표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 5월부터 약 8주간 식품 유통·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 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최근 소비자들이 간편하고 손쉬운 식품 구매를 선호하는 식품 소비 형태에 맞추어 식품의 안전한 유통·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했다. 적발된 업소 6곳에서 ▲미신고 식품소분업 영업 1건 ▲소비기한 임의 연장 표시 1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판매 1건 ▲표시사항 일부 무표시 제품 판매 2건 ▲제조원 거짓 표시 2건 등 7건의 위반행위가 단속됐다.

한 일부가 표시되지 않은 제품이 판매되고 있어 해당 제품 판매 업체에 대한 추적 조사 결과, 전주시 완산구 소재 Γ업소에서는 관할구청에 영업신고 없이 식품을 소분·판매하면서 식품 표시사항 일부를 미표시 한 상태로 1년 10개월간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완주군 소재 Δ업소는 식품을 소분·판매하면서 식품의 표시사항 일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단속됐다. 동구 D업소는 타사의 제품을 매입해 단순 소분·포장하여 판매하면서 마치 자사에서 제조한 것처럼 제조원에 자사명칭을 표시했으며, 식품제조·가공업체인 ρ업소는 제조원 소재지를 거짓 표시하여 적발됐다. 또한, 유성구 M업소는 단순 소분 제품

의 소비기한을 기준일인 원재료의 소비기한보다 7개월 연장·표시하여 적발됐으며, 대덕구 소재 기타 식품판매업소인 B업소는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대전시는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6곳에 대해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 등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식품의 제조에서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기까지의 식품 제조·유통·판매 전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원호/기자

# 무안군, 여름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실시

### 단속기간: 7.17.~8.18.(33일간), 축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등 집중조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안사무소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7.17.부터 8.18.(33일간)까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 축산물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등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 단속 주요 품목은 여름 휴가철에 수요가 많은 쇠고기, 돼지고기 삼겹살, 목심 등 축산물이며 외국산은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쇠고기의 경우 식육의 종류(한우, 육우, 젖소)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 쇠고기·돼지고기 이력번호의 게시 또는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일제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형사입건 또는 고발되거나 과태료 처분의 조치를 하게 된다.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업체에 대해서

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원산지 미표시' 업체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거나 '2회 이상 미표시' 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누리집에 1년간 공표한다. 무안농관원 김성담 소장은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들이 쇠고기, 돼지고기 삼겹살 등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의심업체 중심으로 원산지표시 단속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며, "소비자들도 돼지고기 삼겹살 등 육류를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하여 줄 것"과 쇠고기, 돼지고

기, 닭고기 등 육류 구입 시 원산지 식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요 축산물의 원산지 식별 정보를 농관원 누리집에서 제공하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에게 많은 방문을 당부했다.

김연진/기자



# 이천시, 생활쓰레기 배출시간 준수 집중홍보 및 단속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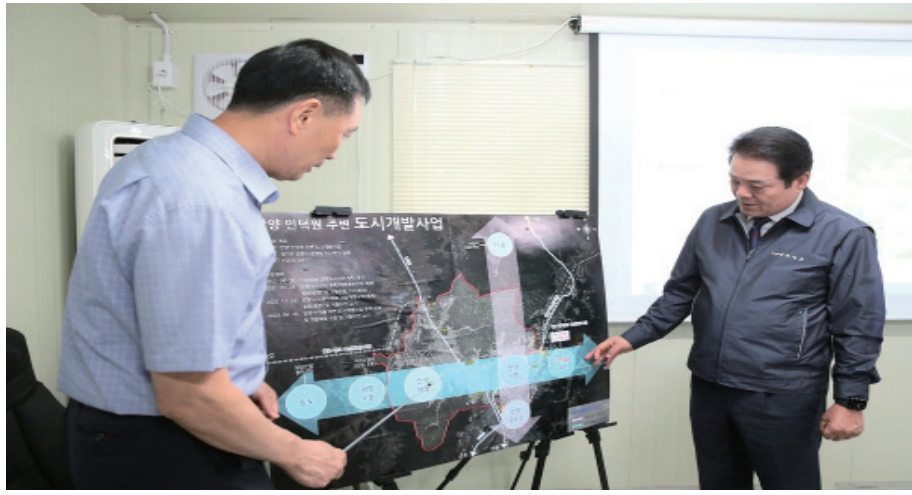
이천시는 본격적인 여름을 맞이하여 쓰레기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생활쓰레기 배출시간 준수 집중홍보(7월) 및 단속(8월부터)을 실시한다. 생활쓰레기 배출시간은 수거전날 오후 7시부터 수거당일 수거시간 전까지이며, 배출금지 시간은 토요일 오전 6시부터 일요일 오후 7시까지이다. 우리집 앞 생활쓰레기 수거일은 배출

장소에 일반종량제봉투와 재활용품으로 나누어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으니 자세히 확인 후 배출하여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배출금지 시간에 쓰레기를 배출하여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망한다. 이러한 배출시간준수가 정착되면 깨끗한 우리 동네 조성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성윤/기자



### 최대호 안양시장, K37+ 벨트 현장점검 “4차산업혁명 신성장 거점”

11일 박달스마트시티 사업부지 및 인덕원 등 도시개발사업 대상지 방문



최대호 안양시장이 11일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벨리 조성사업(이하 박달스마트시티) 부지인 박달동 군부대와 인덕원 등 도시개발사업 대상지를 방문했다.

최 시장은 먼저 박달스마트시티 사업부지인 3623부대를 방문해 양여부지와 기부부지 등을 둘러보고 나중철 대대장과 간담을 나눴다.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일대(328만㎡) 군부대의 탄약시설을 지하화하여 국방부에 기부하고, 나머지 부지를 개발 용지로 확보하여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현재 이 사업은 안양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 공모 관련 가처분 소송 승소 후 재공모 중이다.

최 시장은 “건설경기 침체 등 대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난관이 있지만, 공정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해 4차산업혁명의 신성장 거점이 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시장은 최근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을 수립·고시하고 행정절차를 추진 중인 인덕원 등 도시개발사업 대상지를 찾았다.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은 기존 지하철 4호선에 향후 월곶~판교선, 인덕원~동탄선, 광역급행철도(GTX)-C노선 등 신규 철도 노선까지 계획된 초역세권에 청년스마트타운을 조성해 청년 일자리 창출, 주거 지원, 환승 교통체계 마련 등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최 시장은 “인덕원 주변에 신규 철도 노선을 신설해 안양을 수도권 교통 허브로 도약시키고, 우수한 입지에 청년 주거와 일자리를 마련해 청년들이 찾아오는 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최 시장은 지난해 시청사 부지에 미래선도 글로벌 기업 유치하고 박달스마트시티 조성하고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안양교도소 이전 및 안양법무시설 현대화 사업 등으로 송도와 판교를 잇는 K37+ 벨트 구축을 제시한 바 있다.

안양시를 중심으로 수도권 남부 도시들과 4차산업혁명의 기업을 연계해 한국을 대표하는 미래선도 및 문화 산업의 핵심 거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신우용/기자

## 경북도, 원전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앞장

### 신규진입 및 매출 다각화 위한 ‘경북 원전기업 발굴·육성 아카데미’ 개최

경북도는 11일 경주 힐트호텔에서 도내 원전산업 신규진입 및 매출확대를 희망하는 60여개 기업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경북 원전기업 발굴·육성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번 아카데미는 정부의 신한울 3·4호기 조기건설, 설계수명 만료 원전 계속운전 허용,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추진 등 국내외 원전시장 생태계 활성화와 추세에 맞춰 경북원전 중소기업의 시장진입 진출과 경쟁력 확보를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열렸다.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PS, 한국원자력산업협회, 두산에너지빌리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유관기관 직원들이 중소기업 대상 기술·금융 등 다양한 지원 사업에 대한 소개를 했으며, 우수 원전기업의 성과사례 발표 및 참여기관 간 네트워킹 등 기업 소통의 장도 마련됐다.



도 원전산업 특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및 SMR 등 차세대 원전 사업에 대한 전망과 원전 중소기업 특화기술로드맵 등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한 전문가 설명회 함께 진행했다.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앵커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납품을 희망하는 업체를 조사해 9월경 수요 및 공급업체간 맞춤형 상담회 및 비즈니스 미팅을 추진함으로써 기업성장 연결고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경북은 전국 25기의 원전 중 절반인 12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수의 관련 공공기관이 있지만 대다수의

원전기업은 수도권과 경남에 집중돼 있는 실정이다.

지난 3월 16일 SMR 및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이 지역에 확정된 만큼 앵커기업을 유치하고 원전기업을 집중 육성해 앞으로 일자리 창출에 더욱 힘 쓸 계획이다.

장상길 경북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정부의 원전 생태계 회복에 대한 의지가 강한 만큼 도내 원전기업 경쟁력을 키우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히고, “원전기업 발굴·육성 아카데미를 통해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성장사다리 역할을 함으로써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삼성전자, 전세계 랜드마크에서 ‘갤럭시 언팩 2023’ 디지털 옥외광고 진행



▲ 8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피카딜리 광장(Piccadilly Circus)의 ‘갤럭시 언팩 카운트다운(Countdown)’ 디지털 옥외광고

삼성전자가 ‘갤럭시 언팩 2023: Join the flip side’를 앞두고 전세계 주요 랜드마크에서 옥외광고를 시작했다.

삼성전자는 8일(현지시간)부터 대한민국 서울 코엑스(COEX),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Times Square), 영국 런던 피

카딜리 광장(Piccadilly Circus), 중국 청두 타이쿠리(Tai Koo Li) 지역, 이탈리아 밀라노 두오모(Duomo) 광장, 스페인 마드리드 카야오(Callao) 광장 등 전세계 주요 랜드마크에서 ‘갤럭시 언팩 카운트다운(Countdown)’ 디지털 광고를

시작했다. 광고는 새로운 갤럭시 폴더블 제품이 최상의 일상을 위해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캠페인 메시지 ‘Join the flip side’는 기존과 다른 세상(flip side)으로 소비자들을 초대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7월 26일 오후 8시 전종교 미래가 공존하고 글로벌 트렌드와 혁신을 이끄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갤럭시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최만식/기자

### 전북 청년농업인 농산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남원시 인월면에서 포도(샤인머스켓)를 재배하고 있는 청년 농업인 김민지(33세) 씨가 지난달 30일 전북 농업기술원 주최로 열린 ‘2023년 전북 청년농업인 농산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 참가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대회는 청년이 가진 농업분야의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 사례를 공모해 시상·홍보함으로써 농산업에 대한 관심 확산과 미래농업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해 마련됐다.

대회 참가 대상은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영농 종사자 또는 예비 청년 농업인(만 40세 미만)이며,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9명을 대상으로 2차 면접 심사가 실시됐다. 지역사회 기여도 및 파급효과, 농업 현장 적용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으며 수상자 3인(최우수, 우수, 장려)에게 전라북도지사표창이 수여된다.

김민지씨는 ‘샤인머스켓을 활용한 저알콜 와인 양조 방법 개발’이라는 아이디어로 경진대회에 참가해 최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발효실험실 연구원 경력을 활용한

가능성 와인 개발이라는 아이디어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한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2021년 농식품부 청년후계농 선정자로, 남원시로부터 영농정착지원금 등을 받아 고품질 샤인머스켓 재배와 와인 양조법 개발 등 차별화된 영농 혁신을 통해 성장하고 있다.

김민지씨는 “지역에 연고가 없이 귀농해 정착하기까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역 주민들의 도움과 남원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자립할 수 있었다”며, “청년후계농이라는 사명감과 목표의식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농촌에서 희망을 찾은 청년 농업인의 성공 모델이 되고 싶다.”며 포부를 밝혔다.

현재 남원시농업기술센터는 167명의 청년후계농을 대상으로 영농정착지원금, 후계농경영자금, 영농기반 임차료 지원, 정책자금 이차 지원, 청년농업인 전문 교육 과정 운영 등 청년 농업인을 지원하고 있으며, 관련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남철/기자

## ‘의성군 기업 한국애플리즈’ 경북 농식품 수출프린티어 기업 선정

– 김주수 의성군수, ‘해외 신규시장 개척, 농식품 수출에 선도적 역할 기업, 적극 육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힘쓰겠다’ 밝혀

의성군에 위치한 사과와인 전문기업 한국애플리즈가 2023년 경북 농식품 수출프린티어기업으로 선정됐다.

경북도는 성장잠재력이 있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농식품 수출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최근 2년간 평균수출액, 수출신장률, 수출지역, 사회 기여 등의 평가를 통해 ‘농식품 수출 프린티어 기업’을 선정하고 있으며, 이번에 한국애플리즈는 가공을 통해 지역 특산물인 사과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농식품 수출 증대뿐만 아니라 농가소득 향상,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받아 수상했다.

한국애플리즈는 의성사과를 주원료로 숙성한 중류원액을 사용하여 대표제품으로는 사이더 ‘애플소드’, 과실주 ‘더 찾을수록’, 디저트와인 ‘한소오차드’, 15년산 정통 브랜드 ‘금과명주’ 등이 있다.

특히, 지난 2019년 12월 100만불탑, 2021년 300만불탑을 수상하는 등 해외에서 인정 받아왔으며, 지난해 한국애플리즈 수출은 전년도에 비해 34% 늘어났고 올해는 미국과 뉴질랜드, 호주, 태국 등 3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해외 신규시장 개척, 농식품 수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을 적극 육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의성군 기업 한국애플리즈’는 매년 의성군에 4억 여원의 세수와 지원금 등 지역사회에 튼튼한 후원기업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으며, 아울러, 매년 제품 생산 원료인 의성사과를 약 1천톤 수

매하여 사과재배농가 및 지역사회 경제 활동에 기여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회사 직원 10% 이상의 청년 채용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의성 지역의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학 연계를 통해 고등학생을 채용하고 있으며, 추후, 연계 대학 진학 지원 등의 육성 과정을 함께 추진하는 의성군과 상생하는 기업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윤근수/기자



# 경북교육청,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선도한다!

-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정책연구회' 경북교육청과 늘봄 시범학교 견학  
- 임종식 교육감, " 소중한 우리 아이들에게 질 높은 교육과 따뜻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10일(월)부터 11일(화)까지 울산광역시의회'울산 교육정책연구회'에서 경북교육청과 늘봄학교 시범운영 중인 구미의 자산초등학교와 구미원당초등학교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늘봄학교 정책의 이해를 도모하고 우수학교 견학을 통한 교육정책 연구역량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경북교육청은 희망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는 늘봄학교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내 41개 초등학교에서 경북형 늘봄학교 모델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지난 10일(월), 경북교육청에서 주요 정책과 늘봄학교 추진 상황을 살펴보고 질 높은 프로그램 지원, 늘봄인력 확보, 공간 개선 등 성공적인 늘봄학교 정책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어 11일(화)은 도내 41개 늘봄학교 중 전 교사의 61%가 아침돌봄에 참여하고 있는 자산초등학교를 방문해 아침 스포츠 한마당과



예제능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을 참관했다. 자산초등학교는 매일 아침돌봄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영양과 건강을 고려한 간편식을 제공해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구미원당초등학교를 방문해 '꿈다락 방과후학교' 시스템을 통해 학생들에게

미래 신수요 프로그램과 체육·예술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현황을 참관했다. 해당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한 디지털 드로잉, 골프, 드론, 축구, 요리, 웹툰 등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늘봄학교 서비스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울산과 경북지역의 늘봄학교정책 사업의 정보 공유를 통해 좋은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소중한 우리 아이들에게 질 높은 교육과 따뜻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봉화교육지원청, 블랙홀의 비밀을 밝히기 위하여 봉화 과학교육이 비상하고 있다.

2023 경북과학대회에서 봉화교육지원청 역대 최대 실적 수상



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은 2023년 5월 17일, 6월 8일~9일, 6월 17일에 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에서 개최된 '2023 경북과학대회(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과학전람회, 청소년과학탐구대회)'에서 봉화관내 초·중학교 학생 26명이 참가한 결과 역대 최대 실적을 수상했다.

제44회 경북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서는 5작품을 출품하여 특상 2개(동양초 6학년 최하늘, 봉화중 1학년 김다희), 우수상 2개(봉성초 3학년 석원준, 소천초 2학년 최준우), 장려상 1개(도촌초 6학년 김평인)를 수상했다.

제69회 경북과학전람회에서는 6작품을 출품하여 특상 3개(도촌초 6학년 김평인, 신승연, 재산초 5학년 김경아 승수빈, 소천초 4학년 양진우, 봉화중 5학년 최하늘), 장려상 3개(도촌초 4학년 정민성, 석포중 2학년 최서현 3학년 김민결 이서빈, 청량중 3학년 박가현 김수지 한지연)를 수상했다.

제41회 경북청소년과학탐구대회에서는 과학토론 영역에서 은상 2개(서벽초 6년 김윤슬 박신우, 춘양중서벽분교장 3학년 윤예영 김경민), 융합과학 영역에서 금상 1개(물야중 3학년 배민지 황중원), 동상 1개(물야초 5학년 권시우 6학년 박재미)를 수상했다.

특히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특상 2개와 과학전람회 특상 3개를 수상한 학생들은 2023년 8월 16일과 10월 26일에 실시되는 전국대회에 출전하기 위하여 지금도 지도교사와 함께 연구 활동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박명호는 '학생들의 미래에 대한 도전 정신과 창의융합적 사고를 신장시키기 위해 지도하신 선생님들의 열정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학생탐구 활동 중심의 수업 문화 정착을 위하여 학생 탐구 활동에 대한 지원 폭을 지속적으로 넓혀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금자/기자

# 가족역량강화'소소한 힐링 가족캠프'운영 광명교육지원청, 학생 성장을 위한 가족역량 강화 지원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은 7월 7일부터 7월 8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 가정(19가정, 66명)을 대상으로 가족역량 강화 '소소한 힐링 가족캠프'를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가족공동체 활동, 부모-자녀 교육을 통해 부모-자녀 관계를 개선하고 가족 소통 기능을 강화하여, 학생의 학습, 심리, 정서, 공동체성 향상 및 교육회복 실현에 그 목적이 있다.

'소소한 힐링 가족캠프'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 가정 중 자녀와의 관계 회복 및 개선을 위해 희망하는 가정 중 1차 19가정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가족 구성원 간의 소통과 관계 강화가 필요한 가정, 바쁜 일상으로 가족 구성원들 간 대화가 필요한 가정, 가족 구성원들의 성장과 도전이 필요한 가정 등이 참여하여 가족 역량 강화하고 학생이 가족의 기능을 이해하고 부모님과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맞춤형 가족 프로그램 뿐 아니라 자연과 소통하며 힐링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소소한 힐링 가족캠프 프로그램은 ▲ 경기도 문화유적지 탐방 ▲ 부모 대상 감정코칭 프로그램 ▲ 자녀 대상 어울림 프로그램 ▲ 마음 열기 레크리에이션 ▲ 이야기가 있는 소통 콘서트 ▲ 자연친화적 숲 체험 등으로 이루어졌다.

가족 캠프에 참여한 학생은 "이번 캠프를 통해 가족의 의미를 배웠고, 앞으로 가족과 더 넓은 곳으로 나가보고 싶어요."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 학부모님은 "아이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아이의 감정을 자세히 들여다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감정코칭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고, 이를 통해 아이들과 대화할 때 경청하고 독려하며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라고 소감을 밝히며 가족캠프가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은 '학생맞춤 통합지원 시범교육지원청'으로서 학생의 성장을 위한 맞춤형 통합 지원을 위해 '학습-상담-복지'를 하나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가족 역량 강화를 위해 부모교육, 부모-자녀 상담, 가족공연 등 학생성장 통합지원의 영역을 점차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윤용민/기자



# 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장연합회, 울릉도에서 정기회 개최!

학교운영위원회와 경북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및 장학금 전달



경북교육청은 지난 9일(일)부터 11일(화)까지 2박 3일간 울릉도 일원에서 '2023년 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장연합회(회장 이주희) 울릉도 탐방 연수'를 실시했다. '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장연합회'는 시군별 각급 학교운영위원장이 협의회를 선출하고, 22개 시군 협의회가 모여 학교운영위원장연합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지난 10일 울릉도 입도 후, 울릉교육지원청에서 학교운영위원장연합회 정기회를 개최해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및 경북교육 발전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번 정기회를 통해 경북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연합회 회원이 회비를 모아 근면 성실한 울릉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11일(화)에는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를 방문해 독도의 중요성과 해양영토 주권 강화에 대한 의미를 되새겼다. 박용주 행정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북교육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교육의 표준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학교운영위원회가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와의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경기도교육청, 공문서 불편신고제 운영 학교 행정업무 줄이고 교육활동 전념

경기도교육청, 현장의 소리 귀 기울이며 공문서 질적 개선

경기도교육청이 행정업무 경감과 학생 교육에 집중하는 문화를 위해 현장 참여 중심의 '공문서 불편신고제'를 오는 11일부터 운영한다. 공문서 불편신고제는 학교 발송 공문서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고, 각급 기관의 비효율적인 공문서 생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10개 신고항목에 근거해 학교업무 개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도교육청 누리집에 고지된 누구나 제안할 수 있다.

신고항목은 ▲[자율성 보장] 학교 교육과정 자율권 침해 및 법적 근거 없이 학교에 책임 전가 ▲[생산의 필요성] 공문서 내용 난해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공문서 ▲[공문서 간소화] 공문이나 불임에 요약 내용 제시하지 않거나 분량 적정하지 않은 공문서 ▲[재구성] 상급기관·외부기관 공문 재구성 없이 이첩 ▲[내용의 중복성] 기관(부서)간 유사하거나 중복된 자료 요구 ▲[정책의 일관성] 기관(부서) 간 정책 일관성 없이 학교의 혼란 야기 [수신처 적정성] 해당되지 않는 학교까지 전부 수신처 지정 ▲[제출기한 확보] 학교 보고 기일 5일 이상(주말 제외) 확보하지 않은 공



문서 ▲ [공문제시판 미사용] 공문제시판, 일반제시판 사용 기준 미준수 ▲[기타] 그 밖에 공문서 감축이다. 도교육청은 공문서 감축과 질 개선을 위해 '학교업무개선 이슈페이퍼'를 매달 발행해 친절한 공문서를 소개하고, 학교공문서 빅데이터를 시각화한 시각화 웹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학교 자체 계획 수립을 생략하거나 최소화하여 행정업무를 경감하고 공문서 개선 도움자료 보급, 공문서 책임 강화를 위한 단계별 역량강화 직무교육, 중점과제 선정 등 정책연수도 수행한다.

도교육청 이은재 학교업무개선담당관은 "공문서 불편신고제로 비효율적 공문서 생산 관행 개선에 노력하고, 친절한 공문서 생산 발굴·공유해 공문서 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학교 업무 효율화와 간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학교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2017)'에 따라 공문서 생산 이행기준을 제시하고 공문서 감축과 질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최만식/기자

# 영덕교육지원청, 2023학년도 영덕 Wee센터 '행·가·마'



영덕교육지원청 Wee센터는 7월 8일 영덕교육지원청 중회의실에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소속 가족을 대상으로 행복한 가족 마을 모아 일일 캠프 '행·가·마'를 실시했다.

영덕교육지원청 Wee센터의 특색 프로그램인 '행·가·마'는 가족 간 소통과 화합을 통해 유대감과 친밀감을 형성하고 서로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갖고자 마련했다. 이번 일일 캠프는 하나뿐인 가족 티 만들기, 마시멜로우 챌린지를 통한 소통의

시간, 우드트레이 및 과일 타르트 만들기, 마음 나누기 등으로 구성되어 진행됐다.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은 "주말에 온 가족이 모여 시간을 보내니 뜻깊었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너무 즐거웠다.

그리고 가족들과 행복한 추억이 생길 것 같아 좋았다."라고 전했고 부모님들 또한 "이번 기회로 자녀와 더 가까워지게 된 것 같아 좋고 행복해지는 아이의 모습을 보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장문화/기자

# 고양교육지원청, 7개 시·도 교육지원청과 학생맞춤통합지원 활성화 업무협약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은 10일 부산 아스티호텔에서 7개 시·도교육지원청과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위한 다자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18년부터 지역을 넘어 어려운 여건의 학생들을 위해 긴밀한 교류와 연계를 추진 해 온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울산강남교육지원청 ▲충주교육지원청 ▲군산교육지원청 ▲강릉교육지원청 ▲목포교육지원청 ▲부여교육지원청 담당자들의 소통을 향후 공식적이고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추진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교육복지 담당자 전문성 신장, 지원청 간 사업 관련 정보 공유, 취약계층 학생 지원 수준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공동사업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시·도 관계자, 교육복지사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진 이번 다자간 업무 협약은 전국 최초로 지역 간 활발한 교류와 소통으로 타 지역의 교육복지 네트워크 활성화에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 시범사업인 교육복지안전망과 학생맞춤통합지원 추진을 위한 시·도 교육복지사들의 네트워크 구축 역량강화 연수가 교육부지원으로 10일과 11일 양일간 이루어진다.

교육부 박지애사무관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이해, 리피스평화교육연구소 정진소장의 학교내 갈등해결을 위한 전문적 개입 방법, 전문 퍼실리테이터 진행에 따른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열린 분위기로 진행됐다.

고양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고양교육지원청과 6개 교육지원청은 2022년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이기 위해 청소년문화축제 릴레이캠페인 등 공동으로 진행하는 노력을 한바 있으며, 최근 교육취약학생들의 개별 맞춤형 지원에 대한 전문성이 더 요구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서, 지역을 간 자율적인 네트워크로 소통하고 성장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영기/기자



### 서울시, 여름방학을 슬기롭게 즐기는 문화예술축제 10선 소개

축제로 더위를 이겨낼 다섯 가지 방법으로 즐기는 10개의 문화예술축제



여름방학을 맞이하는 7월과 8월, 다양한 방법으로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10개의 문화예술 축제가 서울 전역에서 펼쳐진다. 공연예술부터 시원한 물놀이까지 다채로운 콘셉트의 축제들이 2023년의 여름을 특별한 추억으로 채워줄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시는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축제 및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자치구 및 민간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공모를 통해 문화적 역량이 뛰어난 다양한 축제를 선정·지원하여 연중 끊이지 않고 서울 전역에서 다양한 축제가 펼쳐질 예정이다. 어린이들에게 창의성과 예술적 감성을 선사하는 두 개의 특별한 축제가 열린다. 축제를 통해 다양한 예술 형태를 접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나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다.

'2023 아시태지 국제여름축제'(7월 15일~7월 30일 대학로예술극장, 아르코예술극장, 종로어린이극장)는 어린이를 위한 세계적인 공연예술축제로 연극 뿐 아니라 무용극, 음악극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워크숍, 전시 등이 진행된다.

'2023 서울 어린이 오페라 페스티벌'(7월 19일~7월 22일 은평문화예술회관)는 '해결사 푸우', '푸른논의 목격자', '푸푸게 노 똥밭안내', '헬렌과 그레텔' 공연을 통해 음악과 연극의 조화로운 세계에 빠져들며 예술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다.

멀리 떠나지 않고 대중교통으로 찾을 수 있는 서울 도심의 공원에서 즐기는 물놀이 축제는 뜨거운 여름을 시원하게 날려주며 물놀이의 재미와 특별한 문화체험으로 여름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W.G.F. 물총축제'(8월 12일~8월 13일 문화비축기지)에서는 다양한 물총놀이와 물방울 스프레이, 물총 대전 등 다채로운 물놀이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도심 속에서 시원한 물놀이의 재미를 제공하며 더위를 날려줄 것이다.

'2023 강북 씬머 워터 페스티벌'(7월 26일~7월 30일 북서쪽 꿈의 숲 문화광장)에서는 어린이 풀장과 함께 타악, 마술, 음악 공연이 개최되어 공원을 찾는 가족들이 여름을 만끽할 기회를 제공한다. 뜨거운 여름보다 더 뜨거운 예술가의 열정이 돋보이는 축제도 있다.

매년 8월 실험적인 예술활동에 뜨거운 열정을 펼치는 '서울프린지페스티벌'과 철의 도시 문래동을 녹일 듯한 파워풀한 메탈밴드들의 릴레이 공연이 펼쳐지는 '문래 메탈시터' 축제이다.

'서울프린지페스티벌 2023'(8월 8일~8월 27일 신촌문화발전소 등)은 1998년 대학로에서 '독립예술제'로 시작되어 올해 26회를 맞이하며 매년 여름, 연극, 무용, 음악, 퍼포먼스, 시각, 영상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주제적으로 참여하여 정형화된 틀을 벗어나 공간을 실험하고 장르와 형식을 넘는 새로운 시도

와 도전을 작품으로 보여주는 축제이다.

'2023 문래메탈시터 10주년'(7월 15일~7월 16일 문래예술공장은) '철의 도시에서 철의 음악을 두드린다'는 취지로 문래동 지역의 색채와 메탈음악을 융합한 축제이다. 올해 10주년을 맞아 블랙홀, 메서드, 디아블로, 램프초오브더폴른 등 국내 최고의 메탈밴드 14팀과 6명의 기타리스트가 참여하여 날씨만큼 뜨거운 연주를 들려줄 예정이다.

광복 78주년을 기념하여 독립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는 축제 두 개가 개최된다. 축제를 통해 과거의 투쟁과 업적을 되새기며 미래를 향한 희망과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서대문독립페스타'(8월 12일~8월 15일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등)는 광복의 기쁨을 나누고 독립과 자유, 평화의 가치를 공유하는 역사문화축제로 기념공연, 특별전시, 체험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

'뮤지컬 김마리아'(8월 14일~8월 15일 서울놀이마당)는 독립운동사에서 잊혀진 여성독립운동가 김마리아의 이야기를 담은 야외 뮤지컬 공연으로 독립운동가를 추모하고 역사를 통해 현재를 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여름의 무더운 기운을 식혀줄 시원한 공연장에서 즐길 수 있는 무용공연 축제 두 건을 소개한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 아래에서 창조적인 안무와 아름다운 음악, 풍부한 감성을 담은 공연들은 더위로 잊게 하며 시원한 감탄사를 자아내게 할 것이다.

'제26회 크리틱스초이스댄스페스티벌 2023'(7월 17일~7월 27일 아르코예술극장)은 평론가들이 뽑은 안무가 8명을 선정하여 신작을 공연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무용축제이다. 매년 잠재력 높은 안무가를 초청해 무용계를 선도해갈 예술가의 성장을 지원한다.

'제29회 창무국제공연예술제'(8월 23일~8월 31일 아르코예술극장, 남산국악당)는 1993년 시작되어 동시대 창작자들의 예술적 교감과 교류의 장이자 한국 무용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는 무용 축제다.

서울시는 축제를 방문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쉽게 찾아가도록 '서울축제지도'를 스마트서울맵 서비스에서도 제공한다. 스마트서울맵에서는 계절별로 축제를 구분하여 서울 전역에서 개최되는 축제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 길찾기, 지도복사 등 편리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최경주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더위로 활기를 잃기 쉬운 계절이지만 가족, 친구와 함께 축제를 즐기며 활기찬 여름방학을 보내기를 바란다"며 "서울시는 축제와 공연 등 문화행사가 시민들의 삶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축제를 지원·육성하고 시민 안전을 우선으로 문화행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 부산시,시무형문화재 보유자 작품전 '혼으로 이어온 맥(魂脈)' 개최



#### 부산시지정 무형문화재 기능종목 장인의 우수한 우리 전통공예 작품 감상 기회 제공

부산시는 오늘(11일)부터 오는 7월 30일까지 북천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2023년 부산무형문화재 작품전시회 '혼으로 이어온 맥'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 유일의 스님 조각가

작품전시회는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9인의 장인이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 전통 민속예술의 아름다운 미(美)와 수준 높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작품전이다.

▲김영길 사기장의 백토를 1,300°C에서 구워낸 백자 달항아리를 비롯해 불교미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우리나라 제일의 불화 제작자 ▲권영관의 불화장, 조선왕조 왕족부터 서민에 이르는 전통 신발을 화려하고 각 신분의 권위를 한뼘 한뼘 장인의 손바느질로 만들어내는 ▲안해표의 화해장과 ▲선화 성각스님의 '억겁의 미소' 등 수행자의 깨달음을 승화시킨 그림이 전시된다.

또한, 우리나라 유일의 스님 조각가 ▲목조작장 청원스님, 아름다운 미(美)

와 강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동래연의 ▲배무삼 지연장, 추사 김정희의 계보를 잇는 정통 전각의 명인 ▲안정환 전각장, 부산 유일의 목선 제작자 하단똥배 ▲김창명 조선장, 청동에 인간의 행복과 염원을 새기고 예술적 작품으로 구현해내는 ▲정민조 동장각장의 다양한 작품 120여 점이 전시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 유산을 보존하고 전승해 나가기 위해 매년 장인들과 함께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라며, "더욱 많은 시민들이 관람하셔서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지고 끊임없이 맥을 이어갈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송종진/기자

### 강남구, 화요일엔 영동전통시장 화개장터로 오세요!

7월부터 10월까지 10회에 걸쳐 지역특산품 등을 파는 23개 업체 참여해 장터 분위기 돋우고 활력 부여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영동전통시장에서 7월부터 10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화요일에 개장하는 장터'를 테마로 한 '화개장터'를 개최한다.

전통시장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한 시장경영패키지 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이번 행사는 영동전통시장 상인회가 주관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강남구가 후원한다.

화개장터는 시골장터 특유의 정취와 낭만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손님을 이끌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계획이다. 7월 4일, 11일, 18일 / 8

월 22일, 29일 / 9월 5일, 12일, 19일 / 10월 10일, 17일 총 10회에 걸쳐 열리며, 운영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다.

지역특산품 등을 파는 23개 업체가 참여해 할인행사와 다양한 먹거리를 선보인다.

또한 영동전통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가 열린다. 영수증을 지참하면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하루 60명에게 무료로 칼을 갈아주고,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무료 타로점을 봐준다. 1만원 이상 구매 영수증을 보여주면 예코백, 물티슈 등을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상인회는 이번 화개장터뿐만 아니라 영동시장 가을축제 등 다양한 공동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쿠팡이츠, 배달의 민족 등 배달 플랫폼에 입점해 주력제품에 대한 온라인 마케팅을 진행하고, 시장 현대화 사업 및 상점 활성화 아이디어 발굴 등을 지원하는 시장매니저 제도를 운영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행사가 도심 속 전통시장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종희/기자



### 신안군,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미식포럼 개최 도시 시동!

신안군은 지난 7월 6일 UNWTO 해리항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장을 군에 초청해 신안세계미식관광포럼(UNWTO World Forum on Gastronomy Tourism) 유치와 국제미식도시 조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군은 천혜의 섬 관광자원을 활용한 1섬 1정원, 섬마다 미술관을 구축하는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에 부응하는 음식문화 발전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가 주최하는 미식행사를 개최하여 국제적인 미식 도시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UNWTO 해리항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장은 1박 2일 일정으로 신안에 머물며 안좌 퍼플섬과 플로팅미술관 건축 현장, 자은 뮤지엄파크 등을 방문했다.

안좌 퍼플섬은 지난 2021년 UNWTO가 선정한 세계최우수관광마을이다. 황국장은 그곳을 탐방하며 최우수관광마을 선정 이후 마을의 경제구조와 주민들의 변화된 모습에 찬사를 보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우리군 특유의 섬 지역 음식문화를 앞세워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와 손잡고 국제미식관광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며 황국장의 협조를 당부했고, 해리항국장은 "신안군의 문화예술정책



에 깊은 감동을 받았으며, 관광지를 방문하여 직접 눈으로 보니 듣고 싶은 마음이 더 깊어졌다"라며 협조 의지를 전했다.

한편, 군은 오는 10월 자은도에서 문화의 달 행사와 함께 군의 농수산물을 식재료로 한 김밥축제를 자치단체 최초로 개최할 예정이다.

김영진/기자

### 완도군, 한상-모국 기업인 비즈니스 축제 11월 여수 개최

27~28일 디오션호텔서 장보고,최경주배 골프대회 함께 열려

한상, 모국 기업인 상생 비즈니스 축제가 11월 27~28일 양일간 여수에서 개최된다.

장보고글로벌재단은 "올해로 두 번째 개최되는 한상, 모국 기업인 상생 파트너십 대회와 부대 행사로 열리는 장보고, 최경주배 골프대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여수 디오션호텔과 디오션CC에서 개최하기로 최경주재단과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상생파트너십 대회는 역대'장보고 한상 수상자'를 비롯한 재외 동포 경제인(한상)과 국내 기업인 등 총 200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남중소기업진흥원의 주관으로 수출상담회와 참가업체의 제품 전시회, 제품 품평회 및 상생 성공 사례 발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장보고, 최경주배 골프대회는 28일 낮 12시부터 디오션CC에서 160명이 참석할 가운데 샷간 방식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김덕룡 이사장은 "지난 6월에 개최된



제1회 장보고한상 수상자 세계대회 개최와 더불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상생 파트너십 대회는 한류 열풍의 수혜자인 한상과 모국 기업인들이 상생 협력을 통한 동반 성장을 모색함으로써 한민족 경제 공동체 구축에 앞장설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최경주 KJ재단 이사장도 "한상과 모국 기업인들이 함께 라운딩하는 골프대회는 장보고, 최경주배 밖에 없다"며 "이들이 운동과 비즈니스를 통하여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점배 장보고한상수상자협의회 회장은 "한류 열풍으로 외국인 소비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한국 상품을 앞다투어 구매하고 있다"며 "천재일우를 맞이하여 올해 상생 파트너십 대회도 K-FOOD와 K-뷰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상생 협력을 통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보겠다"고 다짐했다.

양영욱/기자



# 섬이 그리는 대한민국

제4회

섬의 날

in 울릉도

울릉 최초의 국가 행사

2023. 8. 8. (화) ~ 8. 11. (금)

\* 기념식 장소 : 사동항, 19:00



행정안전부



경상북도



울릉군